알타이系語 研究: 語音

朴 時 仁
(서 울 大 學 校)

目 次

一. 中 聲
(一) 單中聲
1. 種類와 性別
2. 移 動
(二) 移動中聲
1. 種類와 原理
2. 各地方語의 移動中聲
二. 外 聲
(一) 字形에 따른 種類
1. 正 位
2. 從 位
(二) 소리에 따른 種類
1. 소리와 그 範圍 方位
2. 移 動
(三) 終 聲
1. 種類와 原理
2. 各地方語의 終聲
3. 終聲의 記法
三. 語 調

一. 中 聲

(一) 單中聲

1. 種類와 性別

알타이系 大移動民族은 悠久한 때부터 舊世界와 新世界의 大部分에 걸쳐 거의 地球的으로 移動分住하였다. 그 年代가 아주 오래고 그 地域이 아주 넓으니, 자연히 많은 地方的差가 있게 되었다.

알타이山脈에서 東南으로 벋어 太平洋에 이른 그들의 一派의 言語는 몽고, 만주, 한국, 日本의 四地方語를 이룬다. 이 四地方語의 單中聲의 글씨는 아래와 같다.

	[a]	[e]	[o]	[u]	[i]	[ɯ]
몽고 [1]	ㅓ	ㅓ	ɑ	ɑ	ㅓ	ㅓ
만주 [2]	ㅓ	ㅓ·	ɑ	ɑ·	ㅓ	ㅓ
한국	ㅏ	ㅓ	ㅗ	ㅜ	ㅣ	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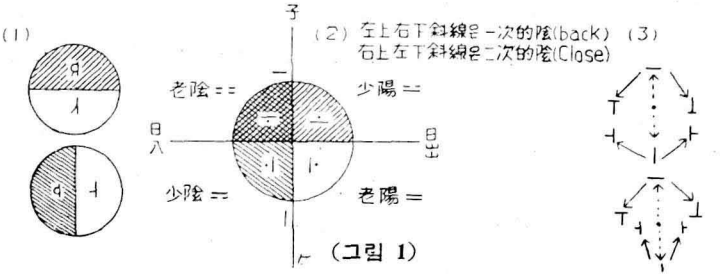
[1] Rochet, *Sentences, maximes et proverbes mantchoux et mongols.* Paris, (1875). pp. 74—6. 竹內幾之助, 「蒙古語教本」 東京, (1941). p. 1.

[2] Langlès, *Alphabet manchou.* (3e ed). Paris, (1807). pp. 100—34. Rochet, *op. cit.*, pp. 2—6. 上原久, 「滿文滿洲實錄の研究」 東京 (1950). pp. 52—7. 알타이系 여러 地方語의 비교 연구를 위해 各地方語의 表記는 모두 同一한 system을 따랐다.

日本 ア エ オ ウ イ スの 中聲

日本 글씨는 中國文字의 略字(片假名) 또는 草書字(平假名) 이니 論外고, 本土 三地方語의 소리와 글씨 모양을 비교해 본다. 三地方語에서 다 같이 a—e, o—u, i—ɯ, 세 개의 쌍을 이루고 있다. 各 쌍의 앞의 소리(a, o, i)는 陽, 뒤의 소리(e, u, ɯ)는 陰이다. 다시 글씨와 소리를 비교해 보면, 몽고 만주 글씨에서는 天干 처럼 세운 기둥에 「아지」가 있고, 한국글씨에서는 天干 처럼 세운 기둥을 가진 各 세 개의 소리(a, e, i)는 陽이고, 몽고 만주 글씨에서는 天干처럼 세운 기둥에 「구멍」이 있고, 한국글씨에서는 地平 또는 水平을 본 따서 눕힌 몸을 가진 各 세 개의 소리(o, u, ɯ)는 陰이라는 것이 分明하다. 작대기와 구멍으로 보면 陽 a e i, 陰 o u ɯ이고, 아까 各 쌍을 비교하니 陽 a o i, 陰 e u ɯ였다. e와 o의 性이 이상하다.

다시 三地方의 글씨와 소리를 모두 비교해 보면, 몽고어의 ㅓ(a, e)와 ɑ(o, u)가 各各 二分되어, 만주어 ㅓ(a), ㅓ·(e)와 ɑ(o), ɑ·(u)가 되고; 또 한국어 ㅏ(a), ㅓ(e)와 ㅗ(o), ㅜ(u)가 된 것이 分明하다. 다른 말로 하면, ㅓ(a, e)— ɑ(o, u)— ㅅ ㅐ(i, ɯ)의 관계는 陽(front)— 陰 (back)— 中和(central)이고, ㅓ와 ɑ가 括弧 안의 것으로 各二分되었을 때는 各二分된 것끼리의 관계가 陽(open)과 陰(close)이다. 즉 a:e=o:u=陽:陰이다. a는 언제나 陽, e는 一次的으로 陽 二次的으로 陰, o는 一次的으로 陰 二次的으로 陽, u는 언제나 陰이다. 그러나 만주語에서 「陽아陰어」라고 한것을 보면 二次的으로 區分되었을 때의 性을 主로 取한 것을 알 수 있다. 分化의 科程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이 그림은 소위 周易 즉 알타이系 大移動民族의 拜天地日月山川而移易從天地人三才之道 理念과[3] 符合한다. 그런데 이 從道移易의 理念에서는 밖(外)은 붉(陽), 안(內)은 옴(陰)이니, 그림 1의 3上은 3下로 그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 理念에는 中性이란 개념이 없으니, 희미하여 다른 어떤 소리로 든지 쉬히 移動하므로 中性이라 부르는 ㅣㅡ는 中和라 부른다.

中和音 ㅣㅡ 보다 더 희미하여, 소리를 내면 그 앞뒤 소리들의 狀況을 좇아 보다 分明한 다른 어떤 소리로 移行한 까닭에,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中世 한국어의 「. 」라는 것이

[3] 朴時仁, 『東明王卵生移住說話의 硏究』, 「서울大學校 論文集 人文社會科學, 第十二輯」 서울, (1966).

더 있었다. 「. 」가 分明化되는 科程에서 二中和音도 다른 모든 中聲도 생긴 것이니, 「. 」는 모든 中聲의 中央本音이었다.[4]

"If then, the vowels have always been more difficult to pronounce than consonants, and if all speech sounds become more difficult to articulate, the nearer we penetrate to the beginning of language, we approach a situation, as we penetrate back, in which language relied on the consonants for communication: a situation in which few speech sounds could be pronounced and distinguished with precision and constancy, and no vowels. And as vowels are necessary for speech, this path leads back to a point of origin in which there was one indistinct nondescript vowel and a smaller number of comparatively precise consonants. Startling as this may seem, it is one of the few fundamental facts in language. It is the primary fact in phonetic history of speech,"[5]

科學時代라 자부하는 오늘날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深大한 音韻學的 사실을 잘 알고, 몽고만주글씨에 없은 「. 」를 지어낸 것은 世宗大王 在位時의 集賢殿의 위대한 科學性을 보여 준다. 그때의 科學에 의하면 알타이系語의 中聲은 一中央本音→二中和音→四分化音, 이와 같이 二를 級差로 가진 기하급수적, 다른 말로 하면, 生物의 細胞分裂的으로 分化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科學性은 사실은 알타이系 大移動民族이 移動分住할 때에 各地로 가지고 간 從道移易 理念의 根本形式이었다.

「易有太極(ㆍ) 是生兩儀(ㅣㅡ) 兩儀生四象(ㅏㅓㅗㅜ) 四象生八卦」[6]

알타이系人의 從道移易 理念과 그들의 言語科學이 완전히 符合한다. 한국 글씨에는 「ㆍ」가 있고, 몽고 만주 글씨에는 「ㆍ」에 해당되는 글씨가 없는 理由도 移易從道 理念의

「男(ㅣ) 女(ㅡ)惣名爲人(ㆍ) 天(ㅓ)地(ɑ)所以無惣名何 曰天圓地方不相類 故無總名也」[7]

로서 설명되었다. 즉 한국에서는 ㅣㅡ를 男女라 보았으므로 二性之和 惣名人(ㆍ)이 있었고, 몽고 만주에서는 ㅓɑ를 天地라 보았으므로 惣名이 없었던 것이다.

ㅏㅓ, ㅣㅡ, ㅗㅜ가 세 개의 쌍을 이루는 것도 移易從道 理念의

「易之爲書也 廣大悉備 有天道焉(ㅓㅓ') 有人道焉(ㅅㅕ) 有地道焉(ɑɑ') 兼三才而兩之(ㅏㅓ, ㅣㅡ, ㅗㅜ) 故六 六者非他也 三才之道也」[8]

에 「從之」한 것이 었다. 天地時所의 中央에서 人和를 얻어 살림하는 자연적 사회적 존재가

---

[4] 李崇寧, 「朝鮮語音韻論硏究 第一集 「ㆍ」音攷」 서울, (1949). p. 134에 「ㆍ」에 대한 從來의 諸說이 소개되었고, p. 225에 「ㅇ音은 아어, 오의 間音이다」란 李博士의 結論이 있다. p. 96의 「아어 오우… 音은 各其 한 쌍의 짝을 이루고 있음이 朝鮮語 母音論의 特異性이다」에 비추어, 「ㆍ」는 「ㅏㅓ ㅗㅜ」의 間音이며 中央本音임을 설파하시었다. 李博士는 그 뒤 『알타이諸語의 造語論의 한 傾向에 對하여』에서 Gabain 씨의 「ㅇ」로서 「ㆍ」를 代表하시어 그 說을 더욱 굳히시었다.

[5] Diamond, *The History and Origin of Language*. London, (1959). p. 153.

[6] 宇野哲人 (譯註), 「易經」, 東京 (1922). p. 430.

[7] 班固 「白虎通德論」 下(天地). 47 a.

[8] 宇野哲人, 上引書. p. 460.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였음을 발견한다.[9]

알타이系語의 中聲을 國際發音圖에 記入하면, 아래와 같다.

	Front	Central	Back
Close	i	ɨ ʉ ㅡ	u ㅜ
Half close	ɪ e ㅓ	ɪ	o
Half open	ɛ æ	ə̀	ɔ ㅗ
Open	a ㅏ		ɑ

(그림 2)

一次的 陰인 ɑɑ·(ㅗㅜ)가 뒤(back), 陽인 ㅓㅓ·(ㅏㅓ)는 앞(front), 二次的 陰인 ɑ·ㅓ·(ㅜㅓ)는 위(close), 陽인 ɑㅓ(ㅗㅏ)는 아래(open); 中和音 中에서는 陰性인 ㅡ가 뒤 위, 陽性인 ㅣ가 앞아래; ㅅ는 전체의 中央이었다. 그러므로 그림 2와 같이 배치 되었다.「ㅣ」의 위치가 國際發音表의 i, ɨ보다 많이 열리고 中央化되었다. 所有格토가 「(몽)ii, (만)i, (한)ㅢ」로 移動한 것 따위가 이것으로 설명된다. 알타이系語의 「ㅣ」는 中央化된 i 소리다. 그러나 이 사실은 中央化된 「ㅣ」가 더 分明하게 되며 앞위(front close)의 소리 [i]를 向하여 移動함을 막지 않음은 물론이다.

中央本音 「ㅅ」는 ə의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인데 실제 위치는 어떠하였느냐?

「ㅅ 는呑튼ㄷ字쫑가온뎟소리ㅁ둔니라」[10]

「ㅅ 는呑탄ㅅ字자가운데소리가트니라」

이 경우는 「ㅅ→ㅏ」移動 3, 「ㅅ→ㅡ」移動 2, 「ㅅ→ㅓ」移動 ㅣ, 요컨대 「ㅅ는 아래 ㅏ」字라는 말도 있듯이 「ㅅ→ㅏ」移動이 가장 많다. 그러므로 한국어 실제에 있어서는 「ㅅ」는 「ㅏ」에 가장 가까왔다. 즉 理論上은 中央本音인데, 실제로는 陽性의 中和音이었다. 이런 理由는 어디서 왔는가.

「天者何也 天之爲言鎭也 君高理下 爲人鎭也 地者易也 言養萬物 懷任交易變化也 始起之天 始起先有太初 後有太始 形兆旣成 名曰太素 混沌相連 視之不見 聽之不聞」[11]

의 太素에 해당되는 「ㅅ」소리는 실제로 소리내면 더 分明한 다른 어떤 소리로 移動해 버린다. 그러므로 「ㅅ」는 中和音域에 遍在하며 話中의 狀況에 從之하여 隨時變易하는 太素音의 記號로서는 可하지만, 移動性이 충만하여 어떤 特定한 소리로서 文字에다가 定住시킬 수는 없는 것이었다. Diamond 씨가 말한 바 그야말로 'one indistinct *nondescript* vowel' 이었다.

---

[9] 訓民正音字解에서는 「ㅅㅡㅣ」三音에 天地人 三才를 適用시켰으나, 이에 從之하면 例컨대 「ㅜ」는 地下에 天이 있다는 字가되니 不可하다. 「ㅅ」는 二性之和인 太極 또는 太素에 해당된다. 李崇寧,「國語造語論攷」 p. 401 참조.

[10] 「訓훈民민正정音흠 原本 寫眞版」, 서울, 1932, p. 9b.

[11] 班固, 上引書, 下(天地) 46ab.

「ㅣ」字는 言語의 科學的 硏究를 위한 記號로서는 深大한 의의가 있으나, 日用語音의 文字로서는 移動性이 너무 컸다. 이것을 日用의 文字로서 나타내어 썼으나, 言語라는 大洋의 活動을 따라서 「ㅣ」의 소리가 各方으로 移動하고 오늘날은 자취도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形式으로 拘束되지 않는 큰 活動의 自由를 語音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移 動

中聲의 性은 소리 자체만의 性임에 그치지 아니 하고, 그것이 쓰인 語의 性이 되고, 語의 性은 그것이 가리키는 事物의 性과 一致하였다. 그 結果 自然的 性別이 있는 것은 물론, 事物이나 그 밖의 모든 것을 뜻하는 單語가 中聲의 性에 따라 性別을 가지고 있었다고 안다.

(몽) aba, obo, ečige(父)	eme(母)
(만) abka(天), ama, haha(父)	eme, hehe(母, 女)
(한) aba, abi(父)	eme, emi(母, 女)
(일) ama(父), očigi, okina(父)	imo(女,妹) omo(母)<(만)eme, kaka(妻) haha(母)<(만) hehe

와 같이 一般的으로 陽中聲을 가진 單語는 自然의 男性, 陰中聲을 가진 單語는 自然의 女性을 가리켰다.[12]

그러나 單語 中聲의 性이 그 單語가 가리키는 事物의 自然性과 다른 경우도 많다. 本은 一致하였으나 소리가 移動한 것이라고 본다. 즉 몽고어 ečige(父)는 ačige 래야 語와 物의 性이 一致하겠는데, 日本語에 očige 가 있음으로써, 몽고語의 ečige 는 ačige 가 移動된 것이라는 센 증거를 얻는다. 반대로 日本語 omo(母) haha(母)는 eme, hehe 라고 되어야 語와 物의 性이 一致하겠는데, 本土語에 eme, hehe 가 있음으로써, 日本語의 o 나 a 는 共히 e 가 移動된 것이라는 증거를 얻는다.

한국어 aba→abi(父), eme→emi(母)의 경우 a—a, e—e 라고 同性끼리 調和하던 두 中聲의 나중 것이 中和音 i 로 移動하여 a→i, e→i 가 되었다. 이 사실은 第二 中聲이 弱化(lax)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第一 中聲이 相對的으로 強化(strain)된 것을, 어떻게 보든지 中聲調和를 유지하던 힘의 均衡이 動搖(shift)된 것을 보여 준다. 強化—弱化(strain-lax)와 그것에 따른 動搖(shift)에 관해서 略述하기로 한다.

強化—弱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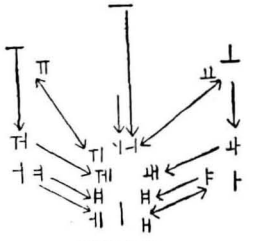
아바→아비(aba→abi), 어머→어미(eme→emi)

따위 例는 アマ→アメ(ama→ame), カザ→カゼ(kaza→kaze), 등 日本語에도 다른 地方語에도 있다. 第一 音節의 것과 同一 또는 同性이던 第二 音節의 中聲이 例의 i 같이 中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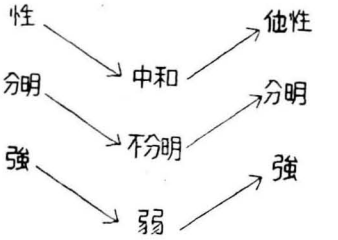
---

[12] 朴時仁, 『延烏郎 細烏女』, 「藝術論文集, 第五輯」 서울, (1966), 藝術院. p. 148.

또는 e같이 他性으로 移動한 따위 현상이다. 一性 陽 또는 陰에서 他性 陰 또는 陽으로 移動할 때는, 「암—옴—엄」「감—곰—검」 처럼 中央本音 또는 中和音을 거쳐서, 즉 中和線 一名 子午線을 넘어서 가게 된다. 그런데 中和線에 가까울 수록 소리가 여리고 희미하고, 멀 수록 세고 분명하니, 一性에서 他性으로의 移動은 그림 3 과 같이 進行된다.



(그림 3)



移動中 中和線 一名 子午線에 이르러 소리가 아주 여리고 희미하게 되면 없게 될 수도 있다. ㅏㅓ, ㅓㅏ 등을 연속해 발음해 보면 中程에서 거의 소리가 없게됨은 그 때문이다. 그리하여 CVCV의 第二 V가 없어져서 CVC로 된다. 그리고 中和線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다시 살아나서 CVC가 CVCV로 된다. 이 때에 다시 가지는 第二 V는 먼저 第二 V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中和音이나 中央本音은 여러 가지 다른 소리로 移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移動狀況에 관해서는 外聲移動과 함께 나중에 例示한다.

中聲調和.

어떤 性의 中聲 다음에 同性 또는 中和의 中聲을 쓰고, 他性의 것을 피하는 中聲調和라 부르는 活動은 性을 달리 할 때에 不可避的인 強→弱→強의 全科程 또는 後半의 科程을 거치지 않고 힘의 經濟(economy of labor)를 期하는 일이다.[13] 弱化의 科程을 거치지 아니 하므로 語調는 stress-stress 型이다. 「아아, 시시하다, 쌀쌀하다」 따위가 그 例다. 第二 V가 中和音으로 弱化되는 경우는 STRESS-weak 型이다. 「'아비, '어미」 따위가그 例다.

그러나 第二 V가 中和線을 넘어 他性으로 移動하는 경우는 힘의 經濟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効果의 增加를 기대하여 힘을 利用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위에서 말한 strain-lax-strain 型 活動이며, 실제로는 앞 뒤 stress가 꼭 같지는 않고, 狀況에 따라서 다르다.

「똑똑똑똑」→「똑딱똑딱」→「뚝딱뚝딱」 처럼 中聲의 移動의 거리가 더 크게 될 수록 効果가 더 크게 된다.

移易從道의 理念과 그것의 陰陽之別은 알타이系 人文의 各分野에 침투되었으니, 一語中

---

[13] 金亨奎, 「國語史硏究」 서울, (1962). p. 263. 「言語는 社會的 存在요 또 社會를 背景으로 변해오지만, 그 出發은 人間에 있는 것이다. 即 各 個人의 心理的 肉體的 作用을 土臺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Jespersen, *Language* p. 261 <언어 변화의 原動力은 個人에서 出發하는 것으로, 拘束力을 가진 社會와의 투쟁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그 原因을 勞力의 經濟에다 두었다.」

에 陰陽의 中聲을 섞는 것은 一器中에 水火를, 一室中에 男女를 넣어 두는 것 처럼 생각되었음에 疑心의 여지가 없다. 알타이系人의 理念에 의하면 天地 君臣 日月 男女 上下 尊卑가 모두 相對的으로 二分되어 있었으므로, 中聲의 性別에 따른 單語의 性別 뿐만 아니라, 話者의 性別, 話者와 相對者 또는 話中 人物의 地位의 上下에 따라서도 用語가 달랐을 것은 可히 짐작 할 수 있다.

	男性用語	女性用語
日本語	をれ(나)	あたし(나)
	ある(있다)	あるわ(있다)
한국語	오시오	오시오, 오시와요
몽고語	bainə(이다)	baina(이다)

처럼 話者의 性에 따라 다른 用語가 各地方語에 조금씩 남아 있다.[14] 어느 地方語에서나 男性用語 보다 女性用語가 더 정중함은 알타이系人의 從道理念에서는 陽上陰下라서 理念的 社會的으로 女性의 地位가 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地位의 上下에 따라서 다른 用語는 알타이系人의 어느 地方語에나 풍부하며 各種 品詞에 걸쳐서 발견된다. 이것을 세밀히 研究하면 알타이系人의 社會關係를 자세히 아는데 큰 도움이 되겠으나, 여러 地方語에 걸친 광범하고 깊은 研究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안다.

二. 移動中聲

1. 種類와 原理

하나의 中聲에서 시작하여 어떤 終聲 또는 初聲(合하여 外聲이라 부른다) 또는 休止도 없이 다른 中聲으로 移動하여 끝나는 소리를 移動中聲이라 부른다. 從來에 重母音이라 불러온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語의 移動中聲은 아래와 같다.

(a) ㅣ로 시작하여 ㅏ, ㅓ, ㅗ, ㅜ로 끝나는 것.

ㅣㅏ→ㅑ, ㅣㅓ→ㅕ, ㅣㅗ→ㅛ, ㅣㅜ→ㅠ

(b) ㅣ를 제외한 單中聲으로 시작하여 ㅣ로 끝나는 것.

ㅏㅣ→ㅐ, ㅓㅣ→ㅔ, ㅗㅣ→ㅚ, ㅜㅣ→ㅟ, ㅡㅣ→ㅢ, (ㅅㅣ→·ㅣ)

(c) (a)의 移動中聲 ㅑ, ㅕ(ㅛ, ㅠ)로 시작하여 ㅣ로 끝나는 것.

ㅑㅣ→ㅒ, ㅕㅣ→ㅖ, (ㅛㅣ→ㅙ, ㅠㅣ→ㅞ)

(d) ㅗ로 시작하여 ㅏ, ㅐ로 끝나는 것과, ㅜ로 시작하여 ㅓ, ㅔ로 끝나는 것.

ㅗㅏ→ㅘ, ㅗㅐ→ㅙ; ㅜㅓ→ㅝ, ㅜㅔ→ㅞ.

移動中聲이란 말은 여기서 처음 쓰는 것이라, 의아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만주語

---

[14] 高橋盛孝, 「北方諸言語概說」 東京, (1943). pp. 178—182.

abka (天) i (의) jui (子)→abkai jui「압캐 쥐」(天子), 한국語의 아이⟹애, 오아⟹와, 이아⟹야 等을 볼 때, ai, ㅐ 따위는 하나의 母音에서 시작하여 다른 母音에서 끝난다는 의미에서 移動中聲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사실은 알타이系語 文字中 가장 科學的인 한국 文字가[15] 잘 보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例컨대「아이⟹애」의 경우, 一移動中聲일 때는 ㅏ와 ㅣ 사이에 ㅇ가 없고, 二單中聲들일 때는 사이에 ㅇ가 있게 한 集賢殿의 알타이語學이 이미 증명해 있다.

ㅇ[ʔ]는 喉部에서 터져 나오는 呼氣, 즉 가장 여린 初聲이라서, 실제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소리의 一時的 休止처럼 청취 된다. 즉 아이[ʔaʔi]는「休止 ㅏ 休止 ㅣ」로서 두 개의 유리된 單中聲이다.

移動中聲이란 이름이 이상하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견해가 있다면, ㅑㅕ 따위의 ㅣ[j], 나궈 따위의 ㅗ[w] ㅜ[w]는 半母音이고, ㅐ[æ] ㅔ[e] 따위는 單母音이라는 所見에서 일 수 있다. 그러나 半母音 또는 單母音이라고 보는 것은 移動이 끝난 상태나 점을 대상으로 한 말이고, 移動中聲이라 보는 것은 移動의 全科程을 대상으로 한 말이다. 어느 것을 대상으로 고찰할 수도 있으니, 대상에 따라서 어느 이름도 可하다. 許雄敎授는

[iəra](續): [jəra](戴)

[iaŋ](移秧): [jaŋ](羊)

따위 例를 들면서,

「「나, 궈」 따위는「ㅗ와 ㅏ의 거듭, ㅜ와 ㅓ의 거듭」이라 說明한다. 그러나 [j]:[i]나 [w]:[o], [w]:[u]는 相互交替로 말미암아 말의 뜻을 分化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서 上記 二例 外의 七例를 略) 우리의 音韻意識에 있어서도 同一한 소리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j]와 [w]를 [i], [u]에서 獨立된 音韻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移動中聲을 소리가 난 상태나 점을 대상으로 고찰한 것이며, 移動의 全科程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不可하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된다. 다시 말하면, iəra(續) jəra(戴)가 共히「이어라—예라」로 소리가 移動할 수 있음은 물론 이다. 단 외래어인 이앙(移秧) 양(羊)은 외래어 식대로만 소리나며「이앙—양」으로 소리가 移動할 수 없다. 오해가 없기 위해 더 말하면,「나, 궈」따위는「ㅗ와 ㅏ의 거듭,ㅜ와 ㅓ의 거듭」이라는 許敎授가 引用한 글의「거듭」이란 말이 만일 移動中聲을 구성하는 各單中聲이 本음가를 그대로 가지고 연속 소리 난다는 뜻이라면 不可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면 不分明한 말이니 설명을 요하는 것이지만,「[j]와 [w]를 [i], [u]에서 獨立된 音韻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말은「나, 궈,」따위 移動中聲의 첫 부분을 음성학(phonetics)적으로 고찰한 말인데, 그것은「나, 궈」따위 移動中聲의 通時的 發聲的 移動의 科程을 음운학(phonemics)

---

[15] 朴時仁,『알타이系語 硏究方法攷』,「語學硏究, 第二卷, 第一號」서울, (1966). pp. 46—7.

[16] 許雄「國語音韻論」서울, (1958). pp. 58—9.

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不可하다는 것은 아니다. 語音을 一時的 器械的 孤立的으로 검토하느냐, 通時的 生理的 移動的 科程에서 검토하느냐에 따라서 음성학과 음운학으로 科學의 分野가 갈라지는데, 알타이系 四地方語를 비교검토하여 그 移動 分化의 科程의 生理的 原理를 알아내려는 시도에서는 一次的으로 음운학을 하고, 二次的으로 음성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方法論의 結語에서 上代 日本語를 예로 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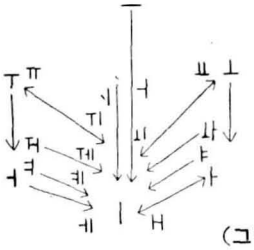
「前을 久知(口, 입), 後(뒤)를 之利(尻, 엄치), 舊(古, 幽, 死)를 之太(下) 또는 毛止(本), 今(現, 生)을 字波 (上)라고 말하였다. 事物 特히 人體의 比喩에 의하여 개념적인 時間, 空間도 이름지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言語, 藝術, 宗敎의 共同의 出生地를 볼 수 있다. 이 活動活力的 深部로 들어가지 아니 하고서는 言語, 藝術, 宗敎의 本質은 決코 그 秘密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17]

라고 말하여, 의미의 硏究에 있어서의 活喩的 通時的 硏究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소리의 硏究에 있어서도 대상인 소리를 活動으로서 다루면서, 그 活動 또는 移動 및 休止를 科學하여, 그것을 단서로 深部의 活動力을 알아내어야 한다.

却說, 移動中聲은 上述한 바와 같이 一中聲에서 시작하여 어떤 外聲도 休止도 개입시키지 않고 他中聲으로 移動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 동안 中聲의 性이 一性에서 他性으로 移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一性에서 他性으로 移動할 경우는 中和音域에 이르러 소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므로, 하나의 移動中聲이 아니라 적어도 두개 이상이 單中聲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移動 中聲의 移動은 原理上 中和線 또는 子午線을 넘을 수는 없다.

2. 各地方語의 移動中聲

(1) 한국語. 移動中聲의 移動狀況을 그림 4에서 보면 子午線 또는 中和線에 대하여 대칭을 이룬다. ㅐㅔ따위는 쓰이지 않게 된지 오래니 제외하였고, ㅢ는 최근까지 많이 쓰였으니 다루었다. 이 地方의 알타이系語에는 ㅘ ㅝ 따위 上下移動은 있으나, ㅛ ㅠ 따위 下上線動이 없는 것이 주목된다. 下上移動이 있는 中國語 보다 移易從道의 道理에 더 충실히 「從之」한다.



(그림 4)

	ㅏ	ㅓ	ㅗ	ㅜ	ㅡ	ㅣ	ㆍ	ㅑ	ㅕ	ㅘ	ㅝ
始	1	1	2	2	1	4	1	1	1	1	1
終	2	2	1	1	0	10	0	0	0	0	0

[17] 朴時仁, 上引書. p. 55. 劉昌淳, 『代名詞史』, 「人文科學 第十三輯」 서울, 延世大 (1965). p. 3. 「現語의 "내"는 單母音인 「nɛ」이지만 李朝初期의 "내"는 複母音 〔nai〕였던 것이다.」라는 말도「ㅐ, ㅔ」따위가 移動 中聲임을 증언한다.

移動의 始終點中 단연 가장 큰 것이 ㅣ다. 舌端에 가장 가까운 소리니 혀의 운동의 시종점이 이것임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2) 만주語. 移動中聲으로 다루어진 소리는 아래와 같다.[18]

a) ㅑ ㅕ ㅗㅜ

b) ㅚㅔㅟㅢ

c) ㅐ ㅔ 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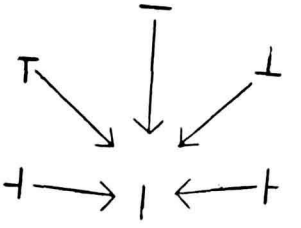
d) ㅘㅙㅝㅞ, ㅝㅗㅘㅜ

이 가운데 ㅝ, ㅗㅘ, ㅜㅘ는 中和線을 넘으니 알타이系語 移動中聲의 原理에 맞지 않는다. 만주語를 포함한 알타이系語에서 ㅏㅓ와 ㅗㅜ는 各各 本이 같았음에 비추어 ㅚ—ㅗㅘ, ㅜㅘ는 各各 ㅘ—ㅗㅗ, ㅘ—ㅜㅜ를 잘못 表記한 것임을 안다. ㅜ도 이상하다. 한국語를 보면 ㅡ→ㅓ 移動은 물론, ㅡ에서 左右로의 移動은 없고, ㅡ에서 시작하여 ㅓ를 지나 ㅣ까지 中和線上을 移動하는 ·ㅣ가 있다. 그러므로 만주語 ㅜ는 ㅜ라고 보아야 하겠는데, 이것은 음가로 보면 中央音 ㅓ다. ㅓ가 아주 애매한 점은로 보면 ㅢ에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만주語의 移動中聲은 결국 한국語의 경우와 완전히 같다.

(3) 몽고語. 移動中聲은[19] 그림 5와 같다.

a) ㅑ ㅕ

b) ㅐ ㅔ ㅚ ㅟ ㅢ ㅣ



(그림 5)

Rochet는 ㅏㅗ라는 移動中聲도 인정하였으나, 下上移動이므로 移易理念에 어긋날뿐 아니라, 他地方語에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中國語音이거나 또는 두개의 單中聲 사이의 子音이 생략된 경우라고 본다.

„Le plus souvent, c'est le consonne *k* ou *kh*, qui, chargée d'abord en simple aspiration, finit par s'élider, et permet de contracter les deux voyelles devenues voisins. Ainsi de—*nagour* [lac], se forme *naour*, que les Mongols euxmêmes écrivent quelquefois—*noor*; de—*Tougoula* [nom d'un fleuve de la Tartarie], se forme *Tooula* ou *Toula*, nom sous lequel ce fleuve est plus connu. L'addition ou la soupression des nasales, le changement de *l'ou*

[18] 註 2 참조.

[19] 註 1 참조.

en *i*, de la consonne *m* en *b*, du *tch* en *ts* ou en *s*, et beaucoup d'autres permutations qui véritablement n'ont pas toujours lieu dans des cas semblables, mais qui d'autres fois agissent simultanément et défigurent totalement les mots, ne sont pourtant évidemment que des adoucissements apportés par l'usage à l'ancienne prononciation." [20]

여기 移記한 文初에 보면 두개의 單中聲 사이의 外聲—대개는 喉音—이 생략된 結果 移動從道의 原理에 맞지 않게 中聲이 잇달아 소리나는 경우가 (nagour→naour)있었다는 것, 그럴 때에는 곧 하나의 移動中聲이 되고, 하나의 單中聲이 되었다는 (naour→noor) 것을 알 수 있다.

移動中聲 ㅢ에 관해서 말하면 元朝秘史의 所有格토 因[jin] [21]의 [ji]다. 이것을 分析하면 [j]는 앞中聲 ㅣ를 단독으로 소리 낼 때 처음에 들리는 「呼氣音 ㅇ」와 「ㅣ의 첫 부 분」의 아주 여린 소리의 結合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國際發音記號로 ɯ 또는 i로 表記되는 中和音 한국 文字 ㅡ 또는 ㅣ의 소리다. 그러므로 몽고語 所有格토 jin은 末尾의 n이 몽고語에서 흔히 그러듯이 탈락되어 만주語 所有格토 i(ㅢ의 단축), 한국語 所有格토 ii(ㅣ) 또는 ui(의)가 되었음을 안다.

秘史를 자세히 검토하면 몽고語의 移動中聲을 더 수집할 수 있겠으나, 他日로 미룬다.

(4) 日本語. 日本語의 假名表 즉 文字表에는 移動中聲으로 다루어 진 것 二行이 있다.[22]

	ㅏ	ㅣ	ㅜ	ㅓ	ㅗ
ㅣ, ㅡ	ヤ(夜)	イ(異)	ユ(由)	エ(延, 曳)	ヨ(用)
ㅗ, ㅜ	ワ(和)	ヰ(韋)	ウ(宇)	ヱ(惠, 隈)	ヲ(乎)

從來 이 二行은 各各 y+ア行, w+ア行이라고 다루어져 왔다. 근자에 이르러 보다 科學的으로 다루게 되어, ヤワ 二行의 더러는 中聲임이 인지되었다. 例컨대,

ア	あ	あ				ウ	うふ	う				オ	おをほ	おを
ワ	わは	わは	イ	いゐひ	い				エ	えゑへ	えへ			
ヤ	や	や				ユ	ゆ	ゆ				ヨ	よ	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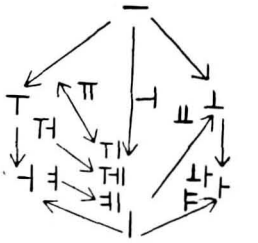
「表に於いて, 片假名は音韻を表はし, 平假名は, その音韻に相當する文字を示したものである。從って, 右の表は, 根本に於いて國語の音韻表であるといふことが出來る。」[24]

ヤ行 ワ行中 더러는 單中聲 더러는 y+單中聲 또는 w+單中聲이라고 보고, 음운학과 음성학을 섞었다. 사실은 日本語의 上記 三行은 다음과 같이 된 것이며, ア行은 單中聲, ヤ

[20] Abel-Rémusat, *Recherches sur les langues tartars*. Paris, (1820). pp. 162—3.
[21] 白鳥庫吉, 「音譯蒙文元朝秘史」 東京, (1961).
[22] 北里闌, 「日本古代語音組織考解說」 東京, (1925). p. 23.
[23] 藤井鑛 「日本文典」 東京, (1900). pp. 40—1.
[24] 時枝誠記, 「日本文法 口語篇」 東京, (1960). pp. 38—9.

行 ワ 行은 移動中聲이다.

ア行	ㅏ	ㅣ	ㅜ	ㅓ, ㅓㅣ	ㅗ
ヤ行	ㅣㅏ	ㅣ ㅣ	ㅣㅜ	ㅣ ㅓ, ㅣ ㅓㅣ	ㅣㅗ
ワ行	ㅗㅏ	ㅜ ㅣ	ㅜㅜ	ㅜ ㅓ, ㅜ ㅓ ㅣ	ㅗㅗ



(그림 6)

ㅐ, ㅜㅜ, ㅗㅗ 따위도 延音이 아니라 移動中聲이기 위하여는 처음의 「ㅣ, ㅜ, ㅗ」는 「이, 우, 오」로서 「呼氣音 ㅇ」와 「中聲의 첫부분」의 아주 여린 소리의 結合이며, 國際發音記號로 i 또는 ʉ로 表記되는 中和音이다. 그림 6은 대칭관계가 완전하지 않다. 缺如된 대칭적 移動音은 日本語에가서 애→아이, アイ(ʾaʾi), 에→어이, エイ(ʾeʾi)[25] 처럼 그것을 구성하는 單音으로 分化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그 理由는 日本文字는 알타이系語가 아닌 中國語文字의 部分 또는 草書形을 借用한 假字 또는 吏讀이기 때문에 日本語音을 정확하게 表記하지 못하고, 대강 記錄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알타이系 各地方語의 移動中聲에 관하여 上述한 바를 요컨대, 만주語 한국語에 移動中聲이 가장 풍부 하였다. 몽고語에 적은 주요한 理由는 심한 移動生活로 인하여 文化의 普及과 保守가 어려웠던데 있고, 日本語에 적은 주요한 理由는 일찍부터 文字를 가졌고 또 그것을 잘 保守하였으되, 文字가 정밀하지 않은 만큼 移動音의 單音化가 文字의 抵抗을 적게 받고, 進行된데 있었다. 한편 만주語 한국語에 移動音이 많은 주요한 理由는 國語에 관심이 많은 乾隆 康熙, 世宗 등 英明한 大王들이 語學을 장려하여 科學的인 文字를 창제 보급 시킨데다가 生活의 移動性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있었다. 特히 한국文字는 科學的이고 單純하여 「智者不崇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以解書 可以知其義」[26] 하므로, 음운조직이 根本的으로 同一한 이들 四地方의 알타이系語의 共通文字로서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科學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정밀하며 「樂歌則律呂之克諧 無所用而不備 無所往而不達 雖風聲鶴淚鷄鳴狗吠 皆可得而書矣」 하기때문에, 그것으로 記錄된 소리는 移動이 저지되어 單純化가 進行되지 못한 폐단이 있다.

二. 外 聲

(一) 字形에 따른 種類

1. 正 位

한국이 外聲에는 訓民正音 당시 다음의 十七개의 單書字音이 있었다.[27] 표준적 위치에서

[25] 服部內郎, 「言語學の方法」 東京, (1960). pp. 247—8 참조.

[26] 「朝鮮王朝實錄」 Vol. 4, p. 702; 『알타이系語 硏究方法攷』 pp. 44—5 所引.

[27] 알타이系 方各地方語의 Romanization을 統一하기 위해, 方法攷 p. 49에서 ㅅ(s), ㅊ(tʃ)라 한 것을, Möllendorff式으로 ㅅ(š—s), ㅊ(c)라 고친다. 方法攷에서는 △(s—z—v—r)라 하였다. 土耳

소리난다고 보고 單書한 이것들은 正位의 外聲이라고 부를 수 있다.

喉音 ㅇㆆㅎ ʼhh

牙音 ㆁㄱㅋ ŋgk

齒音 ㅅㅈㅊ sz c(이태리語 ci의 c)

半齒音 △ ž(日本語 ジ의 初聲, 英語 azure의 z)

舌音 ㄴㄷㅌ ndt

半舌音 ㄹ l—r

脣音 ㅁㅂㅍ mbp

오늘날 ㆆ△ 소리는 다른 것으로 移動하고, 따라서 글자도 쓰이지 않게 되었다. ㅇ初聲은 休止 또는 들리지 않는 呼氣喉音으로서 남아 있고, ㅇ終聲은 쓰이지 않는다. 알타이系語의 終聲은 소리의 길이 막히는 소리였는데, ㅇ는 실제 음가가 없었으니, ㅇ終聲은 中聲의 終止記號의 구실을 한 것이다. 그런데 ㅇ終聲이 없더라도 中聲을 무제한 延音할 이가 없었으니, 그것은 필요치 않았다. ㆁ初聲은 ㅇ 또는 ㄱ로 移動하여 없어지고, ㆁ終聲은 제 음가 ㆁ[ŋ]을 가지고 남아 있으되, ㆁ 대신 字形이 비슷한 ㅇ를 代用하게 되었다. 그 結果 ㅇ字에 限해서는 一字一音이 아니라, ㅇ初聲은 [ʼ] 내지 休止, ㅇ終聲은 [ŋ]이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外聲은 글자는 十四, 소리는 十五가 되었다.

2. 從 位

正位에서 조금 移動된 그러나 同一部分에서 나는 外聲을 從位外聲이라 부른다. ㄲ 따위는 並書, ㅱ 따위는 混書라 불러 字形으로 이름하고, ㅸ 따위는 脣輕音이라 하여 音으로 이름함은 原則의 統一性이 없으므로, 十八世紀의 國語學者 旅菴 申景濬의 訓民正音韻解에서 이미 쓰인 正韻 副韻이란 術語를 본따서 王廷 臣僚의 品位名 처럼 正位 從位라 이름한 것이다. 從位外聲은 正位外聲의 위치에서 조금 移動된 이웃에서 소리 나지만, 발성 도중에 移動하는 移動音이 아님은 勿論, 正位音을 代表하는 글씨에 같은 글씨, 다른 글씨, 또는 어떤 記號를 加用하지만, 加用된 것은 음가를 가지지 아니 하고, 다만 正位에 대한 從位의 相對的 위치를 表示하는데 지나지 아니 한다. 요컨대 加用된 것은 다만 記號(diacritical marks)에 지나지 아니 한다.

(1) 並書된 것. 오늘날 쓰이는 것은 ㄲ ㅉ ㅆ ㄸ ㅃ의 다섯이다. 한 동안 ㅅㅅ ㅆ ㅆ ㅆ ㅆ ㅂㅂ ㅂㅂ 라 混書되기도 하였다. 正音初에는 ㅇㅇ ㅎㅎ ㅎㅎ ㄴㄴ 따위도 있었으나, 그 뒤 다른

其語의 中和外聲(neutral consonants)中의 ɹ[r], j[z], ʒ[zh]를 보아도(Hagopian, *Ottoman-Turkish Conversation Grammar*, London, (1907). p. 7), 여린 z,r이 通한다. 「가슬—가을—가을」은 「ㅅ—△—ㅇ」移動을 明示하고, 倭語類解의 「殘산 風풍 후우」 「乳유 슈 母모 뽀우」는 「ㅇ—△(ザジの 初聲)—ㅈ」移動을 明示한다. 그러므로 △는 「s—z—v—ɹ」사이를 移動한 소리가 분명하다. 그러나 一字一音의 原則을 좇아 移動의 中心 가치를 따서 △(ž)라 表記한다. 「ㅈ—ㅉ」를 구별할 때는 ㅈ(z), ㅉ(zz)로 한다. 그러므로 결국 ㅅ(s) ㅆ(ss) △(ž) ㅈ(z) ㅉ(zz) ㅊ(c).

이웃한 소리들로 移行해 버리고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소리의 길을 막음이 正位音보다 더 세어 흔히 強音이라고 부르며, 모두 無聲音(breathed)이다.

(2) 混書된 것. ㅇㄱ ㄴㄷ ㅇㄱ等이다. 「앉아, 앉다」「싫어, 싫고」「밝아, 밝지」등 並書된 終聲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終聲은 「안자, 안따」「실허, 실코」「발가, 박지」로 소리나서 並書된 各文字가 음가를 가졌으니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混書 從位 音은 初聲으로만 쓰이며, 從位音이 모두 그런 바와 같이, 加用된 것은 소리를 代表하는 文字가 아니라, 正位에 대한 相對的 위치를 表示하는 記號에 지나지 않는다. 倭語類解에 쓰인 例를 보면.[28]

ㅇㄱ「銀은 河하」(p. 2) 「五오 月월 ○이고이파쯔」(p.6)

ㅁㅂ「末말 伏복 ○빤부구」(p. 7) 「乳유 母모 ○메노도」(p. 25)

ㄴㄷ「泥즌흙니 ○도로」(p. 16) 「難예홀탄 ○세又云 나따」(p. 18)

「ㅇㄱ, ㅁㅂ, ㄴㄷ」는 日本語「ガ, マーバ, ダ」의 初聲 즉 [ŋ, m-b, d]에 해당 시켰다. 이런 글씨는 오늘날 쓰이지 않게 되었다. 理由는 그것에서 멀지 않은 正位音「ㅇ, ㅁ—ㅂ, ㄷ」등으로 모두 移動해 버린 때문이다. 아직 쓰던 때의 한국의 言語學이 아주 정밀하였던 사실, 言語活動은 힘의 經濟를 志向하여 單純化되어 간다는 사실, 그리고 言語를 너무 엄밀하게 規制하려는 시도는 言語 자체의 自由活動에 의하여 파괴된다는 사실 등을 여기서도 본다.

(3) ㅇ를 加用한 것. ㅱㅸㅹㅻ等이 있었다. 訓民正音에

「ㅇ룰입시울쏘리아래니어쓰면입시울가비아볼소리ㄷ외ㄴ니라」(p. 12)

라고 있으므로, 이들은 脣輕音이라 부른다.

「右:웋(12 b) 有:웋 頭뚷」(14 b) 「열브니 두터브니」(15 a)

오늘날 이런 소리는 「엷으니(서울) 얄브니(함경) 두터우니(서울) 두꺼부니(함경)」처럼 正位音으로 移動되고 표준어에서는 없어졌다. 移動의 方向을 보면 ㅸ→ㅂ(強化) 또는 ㅸ→ㅇ(弱化), 어느 方向으로든지 移動하였다. 方法攷에서 「어떤 소리에서 다른 소리로 移動하는데 소요된 時日과 移動이 그친 年代를 決定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移動의 方向이 ㅅ⇌ㅆ 처럼 相互的이었으니 移動이 그친 것이 아니다.」(p. 37)라고 한 말이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지극히 제한된 言語社會에서는 「두터브니→두터우니」로든지 또는 다르게, 어느 한 方向으로 移動하여, 移動된 대로 쓰이고 있는 동안, 개별적 移動의 年代를 찾으려고 시도할 수는 있다. 그러나 「두터브니→두터우니」 移動은 끝났을지 언정, 「열브니→엷으니」라는 反對 方向이 移動이 있다면, 移動의 方向이나 끝난 年代를 논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서울 地方의 例다.

同一한 音의 反對方向의 移動이 없다하더라도, 同一한 또는 가까운 종류의 他音에 反對

[28] 「倭語類解」京都大 影印本 1958. p. 18 et al.

方向의 移動이 있다면, 그 소리에 있어 反對方向의 移動이 있게한 그 힘이 언제 이 소리에도 미쳐서 移動의 方向을 바꿀지 모른다. 서울地方의 「가슬→가을」과 함경경상地方의 「가슬→가슬」이 이 경우에 속한다. 地方의 單位를 더 크게 할 때는 알타이系 四地方語 사이에 흔히 있는 사실이다.

또 一地方語에서 어떤 소리 또는 그것에 유사한 소리의 移動이 모두 같은 方向으로 進行되었다 하더라도, 同系 他地方語에는 다른 方向으로의 移動이 있다면, 一地方語에 아직 나타나지 않는 方向의 移動은 그것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地方的 時間的 限界를 加하였더라도, 一言語의 개별적 音의 活動狀況은, 그 地方語 전체 및 그것의 여러 姉妹言語를 포함한 同系言語 전체를 深部로 부터 지배하는 생리적인 힘과 狀況的 條件의 作用의 표현으로서 취급되어야 함을 決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 어떤 地方語에서 어떤 소리가 移動退失하였을 경우, 그 소리가 없어졌거나, 그 소리가 쓰이게 한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개는 소리가 不分明하거나 分明하게 발음하기 어려워서, 그것과 근소한 차를 가진 더 분명한 이웃한 소리로 移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소리가 개성(ego) 또는 자유의 일부를 버리고(abstract), 더 큰 음운적 집단(clan)과 질서를 이루는 科程은, 의미가 형상(image)의 흐린 상징성을 버리고 개념(idea)의 맑은 논리성을 얻는 科程과 같으며, 根本的으로는 개인이 자아(ego)의 일부를 버리고 사회(alter)에 加入하는 科程에 유래한다. 言語가 文字에 拘束됨을 위해서 보았으나, 言語가 文字의 拘束을 打破하고 더 큰 社會性을 가짐을 여기서 본다. 사람에게 딸린 말이 사람을 지배하는 自와 他, 私와 公, 안과 밖의 相對性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이 이와 같으니, 言語를 포함한 人文一切의 根本原理를, 上述한 대로,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이란 移易從道의 理念에 結付시킨 알타이系 大移動民族의 처사가 진실로 科學的임이 재확인된다.

(二) 소리에 따른 種類

1. 소리와 그 範圍 方位

文字에 의한 소리의 分類는 決코 소리 자체의 그것은 아니니, 소리 자체에 의한 分類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하여 먼저 하나의 舊說을 移記한다.

「喩ㅇ影ㆆ曉ㅎ匣ㆅ屬宮土音 生於脾 成於喉而微兼牙 疑ㆁ見ㄱ溪ㅋ群ㄲ屬角木音 生於肝成於牙 泥ㄴ端ㄷ透ㅌ定ㄸ孃ㄴ 知ㄷ徹ㅌ澄ㄸ屬徵火音 生於心成於舌 而泥端透定爲舌頭音 孃知徹澄爲舌上音 心ㅅ精ㅈ清ㅊ邪ㅆ從ㅉ 審ㅅ照ㅈ穿ㅊ禪ㅆ牀ㅉ屬商金音 生於肺成於齒 而心精清邪從爲齒頭音 審照穿禪牀爲正齒音 明ㅁ幫ㅂ滂ㅍ竝ㅃ 微ㅱ非ㅸ敷ㅹ奉ㅸ 屬羽水音 生於腎成於脣 而明幫滂竝爲重脣音 微非敷奉爲輕脣音而兼齒 來ㄹ屬半徵半火音 生於半舌而兼喉 日ㅿ屬半商半金音 生於半齒而兼喉 字母並三十六」[29]

[29] 申景濬, 「訓民正音韻解」 서울 1938 (1750年 原著) p. 15. 李崇寧, 「國語學論叢」 서울, (1966). pp. 123—5 참조.

同書 初音圖에는 「ㄹ半徵半宮」「△半商半宮」이라고도 있다. 이것을 요약하면,

		不清不濁	全清	次清	全濁
喉宮土		ㅇ	ㆆ	ㅎ	ㆅ
牙角木		ㆁ	ㄱ	ㅋ	ㄲ
舌徵火	舌頭	ㄴ	ㄷ	ㅌ	ㄸ
	舌上	ㄴ	ㄷ	ㅌ	ㄸ
齒商金	齒頭	ㅅ	ㅈ	ㅊ	ㅆ ㅉ
	正齒	ㅅ	ㅈ	ㅊ	ㅆ ㅉ
脣羽水	重脣	ㅁ	ㅂ	ㅍ	ㅃ
	輕脣	ㅁ	ㅂ	ㅍ	ㅃ
半徵半宮		ㄹ			
半商半宮		△			

舌頭一舌上, 齒頭一正齒, 重脣一輕脣 等 音을 비교해 보면 各쌍의 먼저 것은 더 세고 선명한 앞의 소리, 나중 것은 더 여리고 희미한 뒤의 소리다. 이 사실은 術語를 비교해 보아도 그 때와 이 때의 소리의 移動 ㄷ—ㄷ(端), ㅌ—ㅌ(透); ㅊ—ㅈ(知), ㅌ—ㅊ(徹)을 보아도 알 수 있다. 輕脣音이 強化 또는 弱化되며 다른 소리로 移動해버린 것처럼, 舌上音, 正齒音도 ㅊ—ㅈ(知), ㅌ—ㅊ(徹) 式으로 완전히 移動해 버리고 없어졌다.

各群은 ㅇㆆㅎㆅ 式으로 原形에다가 조금씩 추가하다가 나중에는 並書하였다. 차츰 더 센 소리, 즉 더 세게 막힌 소리, 다른 말로 하면 더 外聲的인 소리라고 科學하였음을 보인다. 第一行(不清不濁 또는 半清半濁)의 音들을 보면, 「ㅅㅅ」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리의 通路가 좁아지거나 달라는 져도, 연린 소리다. 그러므로

「來母(ㄹ)所屬루。即누우間音。日母(△)所屬수。即 수우間音。皆兼宮。非母(ㅸ)所屬부。即 부우間音。非(ㅸ)奉(ㅹ)敷(ㅍ)微(ㅱ)四母。亦微兼宮者也」[30]

라고 「ㄹ△ㅱ」은 半外 半宮聲이라고 다루었다. 그러므로 本行에 속하는 「ㅅㅅ」도 △(ž)에 접근한[š]라고 안다. 本行은 「ㅇ」에 가장 가까운 行이며, 有聲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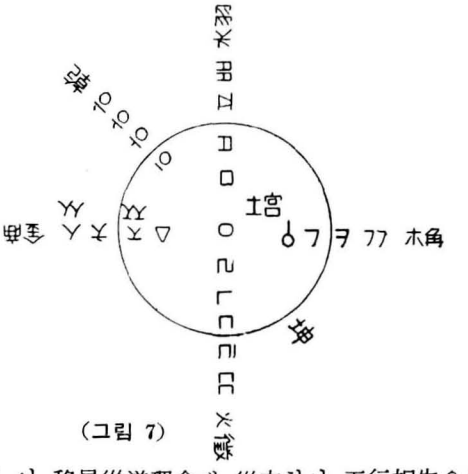
第二行(全清)도 有聲音(voiced), 第三行 (次清)은 無聲音(breathed)이니, 第四行 (全濁)은 물론 無聲音이라고 科學한 것이다.

上述한 바를 그림으로 나타낸다. 圓의 안(陰)은 有聲音이고, 밖(陽)은 無聲音, 中心 「ㅇ」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어느 쪽에도 속하는 外聲의 中央本音이다. 이 그림은 五行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樂書云 夫物生而有情 有情發而爲聲 故天五與地十合而生土於中 其聲爲宮 地四與天九合而生金於西 其聲爲商 天三與地八合而生木於東 其聲爲角 地二與天七合而生於南 其聲爲徵 天一與地六合而生水於北 其聲爲羽」[31]

---

[30] 同 54. 括弧內는 지금 記入.
[31] 「樂學軌範」 Vol. 1, pp. 12 b—13 a.



(그림 7)

와 一致한다. 이것은 알타이系人의 이 移易從道理念에 從之하야 五行相生으로 나가면 土金水木火겠으나, 五音順序로 나가서 宮商角徵羽 즉 喉齒牙舌脣이다.

이것을 國際發音記號와 대조하면 아래와 같다.[32] Stops는 plosives란 術語 대신에 쓴 말이다.

	Front	*Middle*	*Back*
Vowels	a æ ɛ e i y	ɑ ʌ ɔ ɤ ə ɨ ɯ	o u w
Semi-Vowels			
Continuants	*Labials*	*Dental-Alveolar*	*Velar-Glottal*
	f,v ㅸ	θ,s,ʃ,ð,z,ʒ,r ㅅ ㅿ ㅈ ㅊ ㄹ	x,h ㅎ
Lateral			
Nasal-stops	m ㅁ	n ㄴ	ŋ ㆁ
Stops	p,b ㅍ ㅂ	t,d ㅌ ㄷ	k,g ㅋ ㄱ

世宗大王 時代의 우리 音韻學과 오늘의 國際音聲學의 術語를 비교하면, ㅁ(m) ㄴ(n) ㆁ(ŋ)를 우리는 입 안의 위치로 구분하고 저는 코가 울리는 성질로 구분한 것은 다르지만, 지식 내용은 같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舌音이라 이름한 것을, 저는 alveolar (齒根의) 音이라고 이름한 점만이 다르다. 그런데 두 이름은 舌音을 소리낼 때 舌(lingua)

[32] Diamond, *op. cit.*, p. 192.

이 齒根(alveolus)에 다이는 同一事實에 由因한다.

우리는 이 부류의 소리를 낼 때 크게 活動하는 器官 舌로 作名하고, 저는 不動의 器官 alveolus로 作名한 것이니, 舌音이란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 혀를 끊으면 말을 못하니, 어디서나 혀(lingua)는 혀와 말(lingua)을 同時에 의미한다. 말소리를 분류할 때에 혀에서 딴 이름이 있는 것이 마땅 하다면 舌音이 좋다.

소리가 나오는 方式을 보면, stops는 소리의 通路를 완전히 막는다. Nasal-stops는 口路는 막고, 코로 나오게 하므로, 이에 속하는 세개의 소리 상호 간의 구별 조정이 어렵다. Continuants는 매우 좁게 된 口路의 틈으로 소리가 계속적으로 새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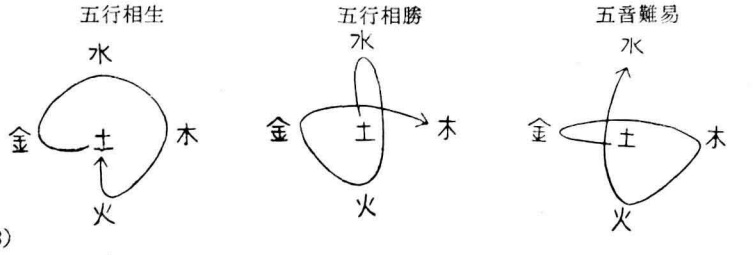
그리고 口路는 喉牙部에서 막는 것이 가장 어렵고 不完全하고, 舌齒部에서 막는 것은 쉽고, 脣部에서 막는 것은 아주 쉽고 完全하다. 그러므로 소리를 가려내기와 가려듣기가 어려운 것 부터 말하면 다음과 같다.

vowels(中聲)—velar-glottal continuants(宮)—dental-alveolar continuants(商)—velar glottal stops(角)—dental-alveolar stops(徵)—labial stops(羽).

五音의 순서를 五行相生의 순서 土金水木火도 아니고, 五行相勝의 순서 土水火金木도 아니고 宮商角徵羽(土金木火水)라고 한 것은 中聲과 外聲의 難易順序로 한 것임을 발견하고, 그 科學性에 놀란다. 알타이言語學의 이 科學性의 기원과 年代가 어떠하였는가가 흥미 있는 문제다. 한국에서는 國字制定의 年代가 곧 그 年代며, 이것은 또 소리의 高低를 나타내기 위해 從來에 律呂名을 쓰던 것을 소리의 種類名으로 代用하여 樂學軌範 卷之二 時用雅部祭樂에서

「宮羽徵角 商角羽徵 宮羽徵角 羽徵宮商 黃南林姑 太姑南林 應南蕤姑 南林黃太」
(變 變)

라고 한 年代지만, 그 本初의 年代는 알타이系 大移動民族이 中國에 進入하여 禮記 月令 등에 「孟春之月……其音角」이라 記錄되기 前의 移易從道의 理念으로 까지 아득히 北上할 것으로 생각된다.[33]



(그림 8)

同系에 딸린 여러 地方語에서 어떤 子音이 몇 地方語에서 다른 소리로 移動하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를 조사한 統計가 있으니 참고로 소개한다.[34] 다음의 統計 A는 인도유럽系

[33] 李惠求, 「韓國音樂硏究」 서울 (1957). pp. 2—8. 李崇寧 「國語造語論攷」 pp. 400—1 참조.
[34] Diamond, *op cit.*, pp. 197—8.

十三言語, 統計B와 B′는 포리네시아系 十言語와 八言語, 統計C는 아프리카의 반투(Bantu)系 七言語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數字는 各外聲이 다른 소리로 移動하지 않고 共通的으로 있은 言語數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이 統計에 있어서 더 많은 言語에 共通的이라고 나타난 소리는 分明하여 다른 소리로 덜 移動하였음을, 즉 발음 및 청취하기가 더 쉬운 소리임을 알 수 있다.

	A(13)	B(10)	B′(8)	C(7)	RATIO		
N	13	10	8	7	38/38	徵—	Nasal Stops
M	$11\frac{1}{2}$	10	8	7	$36\frac{1}{2}$/38	羽	
Ng	11	8	$5\frac{1}{2}$	6	$30\frac{1}{2}$/38	角—	
B	9	10 (B or P)	8		27/31	—	Stops
P	7			$3\frac{1}{2}$	$20\frac{1}{2}$/30	羽—	
V		8	6		14/18		
F				$4\frac{1}{2}$	$4\frac{1}{2}$/7	—	
T	10	9 (T or D)	$7\frac{1}{2}$	$4\frac{1}{2}$	31/38	—	
D	$9\frac{1}{2}$					徵	
Dh	9				9/13	—	
G	6					—	
K		7	5	5	17/25	— 角—	
S	$7\frac{1}{2}$			3		—	商 Dental Continuants
Z				3		—	

鼻音들끼리는 서로 잘 移動하니, 鼻音 아닌 stops 경우를 따라, 어려운 순서를 이 統計에서 보면, 宮商角徵羽의 순서 그대로다. 그러므로 五音의 難易로 宮商角徵羽란 순서를 決定한 알타이系 人文의 悠久한 科學性에 감탄을 금하기 어렵다.

2. 移 動

移動에 관한 말이 이미 進行되었다. 돌이켜 보건대, 外聲은 休止의 상태에서 막혔던 소리의 通路가 열리거나 또는 中聲을 소리내고 열렸던 소리의 通路가 막힐 때에 나는 소리며, 먼저 경우는 初聲, 나중 경우는 終聲이 된다. 그러므로 어떤 初聲 또는 終聲이 되느냐 하는 것은 소리의 通路가 어느 部分에서 맨 나중에 열리느냐 또는 맨 처음 닫히느냐의 문제다. 上揭 國際發音表에 보면 소리의 通路가 막히는 부분은 labial, dental-alveolar, velar-glottal 三區域임을 곧 알 수 있다. Diamond씨는 上引書에서 이 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ere is no local continuity between the areas of the oral cavity where labial and dental

consonants are produced, and no real continuity between dental and palatal. It must be one of the three groups of plosives. And it will be voiced or unvoiced according as the vocal chords are vibrating or not, and a nasal or simple plosive according as the outflow of breath is or is not accompanied by a lowering of the veil of the soft palate. As for the vowel, there will only be a slight, short vowel sound, but, such as it is, it will be a middle or neutral vowel, something between the a in *above*, or u in S.E. English *hut*, or short a in *far*, or a in French *la*—our vowel A [ㅇ]."

소리의 通路가 막히는 上記 세 區域에서 나는 소리들은 同一區域內의 다른 소리들로 상당히 自由롭게 移動함은 물론이고, 발성 청취의 難易에 따라서 移動性에 大小의 差가 있음은 旣述한 대로다. 이것은 生理的 條件에 由因하므로, 알타이系語의 경우도 例外가 아닐 것인데, 실제 移動狀況을 살펴 보기로 한다.

移動狀況은 세로 時間的으로, 가로 地方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개관적으로 살피는데 그치지 않을 수 없다.

(1) 한국語. 移動狀況을 通時的으로 보기 위해 訓民正音 처음을 移記하고, 서울地方의 오늘의 소리와 다른 경우에 限하여, 오늘 소리를 添記하되, 外聲의 移動을 行上에 中聲의 移動을 行下에 쓴다. 朝鮮王朝가 咸鏡道 出身人이 松都의 高麗를 征伐하고 세운 것임에 비추어, 오늘의 北部 地方語 대신 서울地方語와 비교함은, 移都以前의 서울地方語가 가진 더 進行된 移動과 그 뒤各地人이 모인 서울에서의 加速된 移動을 포함하겠지만,[35] 비교하는 量이 많지 않고, 서울地方語가 移都以來 한국 표준어이니, 이것과 비교한다.

「나랏말소리中듕國귁과달라 文문字쭝로더브러서르흘러通통티몯ᄒᆞ논디라 이런젼ᄎᆞ로어
ㅜ ㅏ ㅗ ㅏㅡ ㅓㅏ

린百빅姓셩이니르고져홇배이셔도 ᄆᆞᄎᆞᆷ내제ᄠᅳ들시러펴디몯 홇노미하니라 내이ᄅᆞᆯ爲윙ᄒᆞ야어
ㅐ ㅓ ㅏㅏ ㅓ ㅏㅣ ㅏ ㅡ ㅏㅕ

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듧字쭝ᄅᆞᆯ밍ᄀᆞ노니 사ᄅᆞᆷ마다히ᄡᅧ수ᄇᆡ니켜 날로 ᄡᅳ매便뼌安한킈ᄒᆞ고
ㅕ ㅓ ㅏㅡㅏㅡㅏ ㅏ ㅏ ㅜ ㅔ ㅔㅏ

져ᄒᆞᆯᄯᅳᄅᆞ미니라 ᄀᆞᄂᆞᆫ엄쏘리니君군ㄷ字쭝처ᅀᅥᆷ펴아나ᄂᆞᆫ소리ᄀᆞ두니 ᄀᆞᆯ바쓰면劃풍ᄇᆞᆼ字쭝처ᅀᅥᆷ
ㅏㅏㅡ ㅡ ㅏ ㅡㅣㅓ ㅡ ㅏㅡ ㅏ ㅏ ㅡ

펴아나ᄂᆞᆫ소리ᄀᆞ두니라」
ㅣㅓ ㅡ ㅏㅡ

여기 보이는 移動狀況을 간단히 말한다.

i. 中聲의 移動이 아주 自由롭고 가장 많다.

ii. 外聲의 移動은 喉牙音(velar-glottal), 그것에 가까운 鼻音과 輕音의 移動이 많고; 舌齒音(dental-alveolar)의 移動이 다음가는 듯이 보인다. 移動의 方向을 보면 ㅇ→ㅇ, ㅇㅇ→ㅇ,

---

[35] 小倉進平「黃海道および咸鏡道方言」참조.

ㄴ→ㅇ 처럼 안으로 들어가서 ㅇ이 되어 사라지는 것, ㄱ→ㄷ, ㄷ→ㅈ, ㄷ→ㅅ, ㅿ→ㅇ, ㅸ→ㅇ 처럼 앞으로 나와서 ㅇ가 되어 사라지는 것의 두 方向이 다 있다.

iii. 外聲 가운데서 初聲의 移動을 보면, 自群 안에서의 移動은 매우 自由롭고, 他群으로의 移動은 喉牙音(palatal)에서 舌齒音(dental)으로의 移動은 있으나, 舌齒音(dental)에서 脣音(labial)으로의 移動은 例文中에 없다. 그리고 移動의 兩端은 牙喉(glottal)—ㅇ—脣輕(labial) 처럼 ㅇ를 거쳐서 서로 通한다. 이것은 사라졌던 소리가 다시 어떤 형태로 살아남을 시사한다.

(4) 外聲 가운데서 終聲의 移動을 보면, ㄷ|t|→ㅅ|t|移動, ㅱ→ㅇ移動 등이 보이지만, 共히 실제 소리의 차가 全혀 또는 거의 없는 移動이므로, 실제 移動은 終聲에서는 아주 적었다고 보인다.

(5) 正音에서 初聲으로 쓴 것을 오늘은 앞의 음절의 終聲으로 쓰는 것이 (←로表示)여섯, 그 반대로 쓴 것이 하나가 있다. 이것은 소리보다 記法의 문제인데, 말소리의 흐름이 자연적으로 CVCVCV의 연속을 이루는 알타이系語의 특질에 지금보다 더 가깝게 記錄한 것으로 보인다. 記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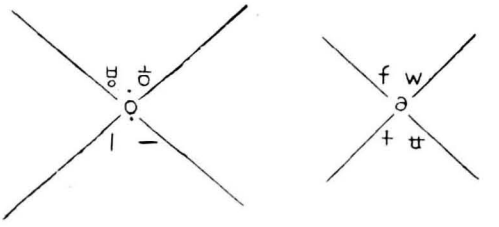
(2)몽고語 만주語. 한국語와 비교할 때, 이 두 地方語에서는 外聲의 文字上 分化가 덜 된 것이 크게 주목된다.

Romanized	k	g	h	ħ	b	p	s	š	t	d	l	m	c	č(z)	y	r	w	f	n	ng
몽고	つ	つ	ᠬ	ᠭ	の	ᠪ	ᠰ	ᠱ	ᠳ	ᠳ	ᠯ	ᠮ	ᠴ	ᠴ	ᠶ	ᠷ	ᠸ		ᠨ	ᠩ
만주	つ	つ	ᠬ		の	ᠪ	ᠰ	ᠱ	ᠳ	ᠳ	ᠯ	ᠮ	ᠴ	ᠴ	ᠶ	ᠷ	ᠸ	ᠹ	ᠨ	ᠩ
한국	ㅋ	ㄱ ㄲ	ㅎ	ㆆ	ㅂ ㅃ	ㅍ	ㅆ	ㅅ	ㅌ	ㄷ ㄸ	ㄹ	ㅁ	ㅊ	ㅈ ㅉ	ㅏ 의 ㅣ	ㄹ	ㅘ 의 ㅗ	ㅸ	ㄴ	ㆁ
日本	カ	カ	ハ		バ パ		サ	サ		ド ト		マ		ザ チ	ヤ	ラ	ワ		ン	ガ ン

알타이系 四地方語의 外聲文字들을 실은 이 表를 보면, 한국語 從位並書外聲 다섯 中 ㅆ를 제외한 넷은 本土 北部 二地方語에서는 分化되어 있지 않다. 加之에 ㅋ—ㄱ, ㅈ—ㅊ, ㄷ—ㅌ도 分化되지 않았고, ㅋ—ㄱ—ㅎ—ㆆ는 한국語에서는 牙喉 二群에 걸쳐 있지만 同群으로 되어 있다. 反對로 한국語에서는 文字上 分化되지 않은 l, r이 二地方語에서는 서로 거리가 먼 字形을 가지고 分化되어 있다.

特히 주목되는 것은 「와의오」(w)와 ㅸ(f)의 字形이 二地方語에서 같은 사실이다. 「와의오」는 아주 輕한 喉音으로서 실제 음가는 「ㅇ—ㅇ」와 거의 같고, 輕脣音 ㅸ도 조금 더 輕하게 되면 「ㅇ—ㅇ」가 되니, 外聲 移動의 兩端 牙喉(glottal) —ㅇ—輕脣(labial)은 ㅇ를 거쳐서 서로 通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본다. 「ㅡ」는 가장 輕微한 中聲이므로 「ㅇ—ㅇ」의 차가 극히 輕微하니, 모든 外聲의 中央本音인 「ㅇ」와 모든 中聲의 中央本音인 「ㅡ」는 一本이다. 그러므로 「ㅇ」는 中外 모든 소리의 本音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그림 9)

이 그림은 혀를 움직이지 않고, 口路의 앞이나 뒤를 막을락 말락한 상태에서 숨(breath)을 내면 「ㅇ」, 소리(voice)를 내면 「ㅣ」, 숨과 소리의 차를 적게 할 수록 「ㅇ」와 「ㅣ」는 무한히 접근하는 사실을 보인다.

上述한 바로서 몽고 만주語는 旣히 검토한 中聲 뿐만 아니라, 外聲도 한국語와 根本的으로 같으며, 北部 二地方에서는 한국에서 보다 外聲이 文字上 덜 分化되었으나, 소리의 실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같음이 分明하므로, 結局 本土 三地方의 알타이系語의 語音은 根本的으로 사실상으로 같았다고 안다.

iii. 日本語. 日本語 글씨에는 ㅎㅊㅋㅌㅍ 等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한국語에서 日本語로 건너가면, 다른 소리들은 대개 그대로 나지만, 이런 소리들은 日本語에 있는 가까운 다른 소리로 移動하였다. 倭語類解에서 採字해 본다. (括孤)는 終聲의 移動을 表示한다.

[宮] ㅎ/ㅇ音소리음/인(正音에서는 音흠) ㅎ/ㄱ効효/교우 驗험/겐 ㅇ/ㄱ逆역/계기

[商] ㅊ/ㅅ(ㄹ/ㅉ)七칠/시찌 ㅇ/△(ㄹ/ㅉ)日일/시쯔 ㅅ/△順순/윤

[角] ㅋ/ㄱ快쾌/과이 홀쾌 ㄱ/ㄱ溪시내계/계이 ㄱ棄기/기

[徵] ㅌ/ㄷ土흙토/도 ㅇ즈지 ㄷ/ㅈ地따지/지 ㅇ즈지 (地 따디)

[羽] ㅍ/ㅎ(ㅎ/ㅇ)風풍/후우 ㅂ/ㅎ秘비/히 ㅆ/ㅅ(ㅂ/ㅎ)十십/시후(正音에서는 十씹)

한국語에서 日本語로 건너 갈 때의 移動은

[宮] ㅎ→ㅇ, ㅎ→ㄱ, ㅇ→ㄱ, ㅇ→△

[商] ㅊ—ㅅ, ㅆ→ㅅ, ㅅ→△

[角] ㅋ→ㄱ (ㅎ→ㅇ)

[徵] ㅌ→ㄷ, ㄷ→ㅈ (ㄹ→ㅉ)

[羽] ㅍ→ㅎ, ㅂ→ㅎ (ㅂ→ㅎ)

宮(glottal)에서 徵(dental)까지는, 소리가 뒤에서 앞으로 移動해 나오고, 羽(labial)에서는 도루 宮으로 移動해 들어갔다. 이것은 本土 알타이系語의 「ㅂ—ㅎ—ㅇ—ㅎ」移動과 같다.

따라서 이 移動의 「ㅂ—ㅎ」 사이의 日本文字에 없는 소리들도 日本語에 있었음을 또는 아직도 더러 있음을 시사한다. 終聲의 「ㄹ→ㅉ(ツ)」 移動은 ㄹ을 半徵半宮이라는 까닭을 보여 주고, 「ㅅ—△—ㅇ」 移動은 △을 半商半宮이라는 까닭을 잘 보여 준다. 그리고 「日 ㅅㅈ ジツ, 順 순 ジュン, 地 ㅈㅣ ツチ」는 △ㅈ의 음가를 알아내는 중요한 자료다. 즉 △는 例컨대 「오지」의 ㅈ에 가까운 여린 소리고, ㅈ는 例컨대 「올지」의 ㅈ에 더 접근한 센 소리다. 즉 半徵半宮인 ㄹ의 半徵정도 세게된 소리다.

한국語에서 日本語로 건너 갈 때의 終聲의 「ㅎ→ㅇ」移動과 한국語 안에서의 「語엉→語어」 따위 初聲 「ㅎ→ㅇ」 移動은 알타이系語의 移動의 큰 原動力이다.

(a) 終聲의 「ㅁ—ㄴ—ㅎ—ㅇ」移動으로,

(몽·만) morin(馬)→mori→(중)馬→(한)물→ㅁ[36]→(일)メ[37], ウマ[38]

(몽·만) sain(吉)→(한)샌(明), 샘, 새(新), 새로(更)→(일) サラ(更)

(b) 初聲의 「ㅋ—ㄱ—ㅇ—ㅎ」移動으로,

(몽) kara(黑)→qara→(만)hara→(한) 加羅→(일) クロ[39]; クラ(暗)

(만)ehe, 어허(凶)→*ㅇ허→(한) 헌(古), 헐→(일)フル(古)

(c) 「ㅇ」에 이르러 外聲이 사라지게 하는 이런 移動으로 인하여 접촉된 두 中聲이 하나의 移動母音 또는 延音이 됨으로, 二音節이 單音節이 되어,[40]

(몽) kumun(人)→kun(人·君·軍), hun→qan, han (罕)→(중) 君→(만) han (君)→(한) 일군(人),

(몽) qaγan(合罕)→ qan(罕) 〈秘史〉, nagour(湖)→naour→noor 〈Abel-Rémusat〉.

單語의 初, 終, 中, 세 部分이 이리하여 달라지고, 달라진 것이 다시

hun→hunni, unni, 凶奴→cumani[41]

式으로 달라져서 單語의 소리가 자꾸 移動하고, 그 때마다 狀況에 따라서 의미가 移動하여, 하나의 本語에서, 다른 소리와 다른 의미를 가진 單語가 많이 派生하게 되었다.

上述한 것을 요컨대, 알타이 四地方語는 —다른 地方語도 그러하리 라고 짐작 되지만— 모두 根本的으로 同一한 音韻體系를 가지고, 同一한 生理的 條件에 由因하는 힘에 의하여 支配되고 移動되어 왔다는 것을 알았다.

(三) 終 聲

1. 種類와 原理

---

36 「망아지, 송아지」는 本은 「마ㅇ지, 소ㅇ지」였으므로, 마(馬), 소(牛)였다. 朴時仁, 『添山』, 「閑山 權重輝先生 華甲記念論叢」, 서울 (1966). p. 10 참조.

37 尾崎喜左郎, 『上野における韓來文化』, 「韓來文化の後榮 下卷」 東京 (1963). p. 231. 有馬「アリマ」 群馬「クンマ」는 三國史記地名式으로 풀면 閼買「알매」 金買「ㄱ매」 즉 北川 神川의 뜻.

38 大野晋 『言語からみた韓國と日本』, 「韓來文化の後榮 下卷」 p. 27.

39 小倉進平 『國語語原の 問題』 東京 (1940). p. 23.

40 朴時仁, 『添山』 pp. 15—6, 『東明王』 pp. 456—7. 41 同書 同所 참조.

말은 소리의 지속과 그침의 時間的 흐름을 이루고 발성청취되는 것인데, 소리가 나올 때는 소리의 出路가 열리고 소리가 그칠 때는 자연적으로 소리의 出路이 닫히므로, 엄밀히 말하면, 모든 單中聲은 CVC 型이다. 單一한 中聲만 내었을 때에도 엄밀히 말하면, 例컨대 「ㅣ」면 「ㅣ」를 소리 내기 위해 通路가 열릴 때와 소리 낸 뒤 저절로 닫힐 때에 外聲 「ㅇ」가 앞뒤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소리를 CVC 型으로 다루어, 「豫영, 爲·웡, 易·잉」 式으로 쓴 訓民正音의 記法은 지극히 科學的이다.

그런데 CVC 型의 終聲 C가 가장 輕微한 外聲인 ㅇ[ʾ] 보다 조금이라도 더 세면, 口路는 세게 닫힌 힘 만큼의 反作用으로 다시 열리며 輕微한 中聲 ㆍ[ᴇ] 소리가 난다. 그 結果 이런 경우는 CVC→CVCV 型이 移動이 있게 된다. 반대로 終聲이 아주 輕微하게 되어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CVC→CV 型의 移動이 있게 된다. 初聲이 아주 輕微하게 되어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CVC, CVCV, CV는 各各 VC, VCV, V가 된다.

單語形式의 移動史를 보기 위하여, 古代 로마語에 관하여 Lewis and Short's Latin Dictionary의 모든 單語中, 다른 單語에서 派生된 것과 더 쪼갤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즉 모든 根語(radical words)에 관한 조사를 소개한다.

"There are approximately 775 of these. They are very short words, and are of the form CVCV, CCVV, CVV, CV, VCCV, CCV, VCV or V (where C signifies any consonant and V any vowel). But no less than 86% of these words are of one form, namely CVCV—a fact to which we shall often have occasion to return—and even of the rest a further 8% are of the form VCV, suggesting that the initial consonant of the CVCV have fallen out. The remaining 6 types constitute between them only 6% of the whole."[42]

Semitic 語에 관해서 引用한다.

"The Semitic tongues, constant as they are in comparison with any other family of languages of which we know, are unique in the length of their radicals. They are generally (for example, in Arabic) of the form CVCVCV (as, *qaṭala*=be killed); or (for example in Hebrew) of the form CVCVC (as, *qaṭal*=be killed). Almost all their verbs contain three consonants, separated by vowels, in place of the Indo-European two. But many scholars are agreed that in a common parent-language the Semitic verbs consisted of two consonants instead of three, and were therefore of the form CVC(V)."[43]

"In the Sumerian writing, it will be seen from column I of the tables (pp. 14 and 54) that the simplest vowel and syllabic word-signs under each letter-value in this alphabetic

[42] Diamond, *op. cit.*, p. 68.
[43] *ibid.*, p. 76.

catalogue consist of single vowels, and single consonants, each followed by a vowel that is absolutely necessary to sound the consonant. And it is from these simple consonantal signs, wherein the consonant is followed by a vowel, that the alphabetic consonant letters are found to be derived. This latter feature now explains for the first time the inherent suffixed vowel in every consonant in the Semitic Phoenician, Hebrew, Sanskrit and other allied Indo-Aryan alphabets, in that it was a feature of their parent script, the Sumerian. Thus, for example, the Sanskrit script writes the Aryan clan-title of *Barat* (or "Brit-on") as B'RT, just as the later phoenician wrote it PRT, the short suffixed *a* [ˎ] being inherent in every consonant.

These vowel and simple syllabic word-signs in Sumerian now seen to be the parents of our alphabetic letters, read according to their transliteration into "roman" letters, as universally accepted by Assyriologists, as follows: A or Ā, Ba or Bi, Da or Du, E or Ē, Fi, Ga, Ha or Kha, I, Ka (or Kat), La, and so on to Z or Za, as seen in the Tables (Plates I and II)."[44]

처음 引用文에 의하면 로마語根語의 86%가 CVCV 型이라는 것은, 나중 두 引用文의 內容과 一致하여, 말소리는 입이 열려(C) 소리나고(V) 닫힌다는(C) 生理的 條件에 의하여 어떤 言語에서나 共通的임을 말한다. 알타이系語에서 같을 것인데, 나중으로 미루고, 引用文들을 계속 검토한다.

처음 引用文中 로마語의 CCVV, CVV 처럼 연속된 中聲은, 어떤 言語에서 어떤 時代에 두개의 單音으로 소리났다 하더라도, 中聲이 가진 移動의 自由로 인하여, 하나의 移動音 또는 延音의 科程을 거쳐서 하나의 單音이 된다. 그러므로 CCVV, CVV 는 各各 CCV, CV 라 다룰 수 있다. CCVV→CCV, VCCV 처럼 연속된 外聲은, 外聲이 소리나기 위해서는 극히 여린 것일 지라도 中聲의 不可缺이므로, 그 사이에 中聲이 들어가거나 하나의 外聲만 소리난다. 그러므로 古代 로마語에서도 모든 경우에 CVCVCV 의 연속을 이루었다고 알게 된다.

셈系語에 관한 글인 두째 引用文中 Arab. CVCVCV: *qaṭala* 는 Heb. CVCVC: *qaṭal* 이며, *qatal* 의 l(ㄹ)은 알타이系語: mori—물—ㅁ, 나를—날—나 (나를 부른다, 날 부른다, 나 부른다)의 l(ㄹ) 같아서 *qata+l=qatal* 라 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많은 학자들이 CVC(V)가 本形이었다고 보는 所以다.

나중 두 引用文에는 Semitic 語 Sumer 語에서 Indo-European, Indo-Aryan 系語가 갈라졌다는 說이 보인다. 이미 발표한 硏究論文에서, Sumer 語와 古代 中國語가 가진 많은 共通語와 象形 指事 會意 形聲 轉註 假借 等 共通의 六原則에 의한 同一文字가, 두 地域 사

[44] Waddell, *The Aryan Origin of the Alphabet*. London, (1927). p. 11.

이를 悠久한 때부터 그치지 않고 往來하는 中央 아시아 알타이 地方의 大移動民族에 의하여 移布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Dr. Waddell은 아래와 같은 말로 이를 지지 하였다.

"These are a miscellaneous category of more or less slightly variant local forms of "Semitic" Phoenician found in Armenia, and in the highlands of Mesopotamia, in Persia, etc. as "a commercial alphabet of Asia" from about the seventh century B.C. onwards. From these were apparently derived eventually the Arabic, Syriac, Persee, Hebrew and Mongol scripts."[45]

方法攷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文字는 蒙古文字(Mongol script)를 改作한 것인데,

「所謂蒙古文字は國字 (1269 A.D.에 國字로서 天下에 頒布된 八思巴字)にあらずして畏兀兒字の謂なり。畏兀兒字を以てすべての鋪馬箚子を書くは, 中統三年(1262) 三月以來のことにて, それ以前は漢字の箚子も行はれしなり」[46]

그러므로 한국文字는 八思巴文字아닌 蒙古文字 즉 思兀兒文字의 改作인데, 畏兀兒文字는 Semitic字의 移動形이고, Semitic字는 Sumer字에 由來하고, Sumer語文은 中央 아시아 알타이 移動民族에 의하여 古代 中國語文과 通하였으니, 이 移動民族의 移動과 함께 言語 文字 및 人文 전체가 여러 번 서로 通하였다. 이리하여 알타이系의 우리 言語와 文字는 世界의 그것과 여러 겹으로 連結되어 있는 것이다.

上述한 것으로써, 알타이系語도 역시 CVCV의 連結을 이룰 것은 疑心 없는데, 우리四地方語中 가장 終聲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한국語의 경우를 例로서 검토 한다. 旣引 訓民正音文을 「홇ᄯᅳᄅᆞ미니라」까지만 검토한다. 모두 112 중에서 中國文字 11을 덜면 모두 101音節이 있는데, 終聲字가 쓰인 것은 22 있다. 그 中 「나랏」와 「어엿비」의 「ㅅ」은 단순한 休止의 단축이니 제외하면, 終聲은 20뿐이다. 20中 ㄹ11, ㄴ4, ㅁ2, ㆁ1, ㄷ2 있다.

그런데 終聲 다음에 中聲이 오면, 終聲은 소리의 通路를 세게 막지 않고, 다음 中聲의 初聲이된다. 그러므로 終聲이 소리의 通路를 세게 막고 사실상 終聲의 구실을 하는 것은, 다음에 中聲이 오지 않는 경우, 즉 休止 또는 初聲이 오는 경우다. 소리의 出路를 막는 終聲이 休止 앞에 있을 때에는 그 終聲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口路는 牙喉音區(palatal), 齒舌音區(dental-alveolar), 脣音區(labial)의 세 區(area)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완전히 막힌다. 따라서 stops와 continuants의 차별이 완전히 없고, 各區에서 소리나는 모든 終聲은 그 區에서 가장 세게 막힌 소리 하나가 된다. 즉 모든 牙喉音은 ㅋ/k/, 齒舌音은 ㅌ/t/, 脣音은 ㅍ/p/가 된다.

단, 口路는 막혀도 숨이 더러 코로 나오는 鼻音(nasals) ㅁㄴㆁ等은 終聲으로 쓰혀도 언제나 本音대로 소리난다. 口路는 막혀도 숨이 더러 舌邊에서 새어 나오는 ㄹ도 같다. 이

---

[45] *ibid.*, p. 15. 朴時仁, T.S. Eliot as Seen from Asia「영어영문학 24」서울(1967)pp. 82—4 참조

[46] 箭內互, 「蒙古史研究」東京, (1930). pp. 874—5, 890—1.

런 소리는 소리의 出路가 불완전하게 막힌 것이라는 의미에서 中聲과 外聲의 中間的인 소리다.

上述한 바를 요컨대, 한국語의 終聲은 완전히 막는 것 셋, /k/ /t/ /p/; 불완전히 막는 것이 넷, ㅁㄴㅇㄹ; 計 七뿐이다. 그것도 다음에 休止 또는 初聲이 있을 때에 限하고, 다음에 中聲이 있을 때는 終聲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上引 訓民正音文의 終聲「ㄹ11, ㄴ4, ㅁ2, ㅇ1, ㄷ2」을 다시 보면, 出路를 완전히 막는 終聲은 ㄷ/t/가 두 번 쓰인 것 뿐이다. 알타이系語中 가장 終聲이 많이 쓰인 것으로 보이는 한국語의 경우도 이와 같다. 그러므로 이미 본 다른 系語처럼, 알타이語도 거의 완전히 CVCVCV의 연속으로 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하거나, 또는 맞춤법을 잊어 버리면,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마춤버브리저버리면, 더 부드러께 마랄 수 이슬 거시다」처럼.

2. 各地方語의 終聲

(1) 한국語

i. 終聲 다음에 初聲이 오는 경우.

CVC+V→CVCV가 된다.「사람이→사라미, 쌀알이→싸라리.」이것을 가리켜 소리의 연결(liaison)이라 부른다. 그러나 어떤 소리 다음에 休止가 오는 경우는 소리가 그치니 논외지만, 소리가 오는 경우는 소리가 늘 연결되는 것이 사실이다. 소리 다음에 소리가 오는 경우는 아래 네 종류 뿐이다. CV+V, CV+CV, CVC+V, CVC+CV, 둘째 세째 경우는 CVCV가 되니 연결이 자연스럽다. 나머지 두 경우만 검토를 요한다.

CV+V는 붙어서 CVV가 되거나, 붙지 않아서 CV V가 될 수 밖에 없다. 붙을 경우는 인접된 두 VV가 하나의 移動中聲(VV), 하나의 延音(V—), 이렇게 되었다가 單音(V)이 된다.「아이가 오오→애가 오.」붙지 않을 경우는 例컨대「아이가 오오」의「아이」「오오」各各을 떼어서 소리 내려면,「아 休止 이」「오 休止 오」처럼 사이에 休止를 두어야 발성의 기관이 제대로 움직인다. 그러나 이런 休止를 두는 것은 달리다가 섰다가 다시 달리는 것 처럼 힘드는 일이다. 이런 부자연한 계속을 hiatus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완전한 休止를 하지 않고, 가벼운 休止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ㅇ소리가 中聲 또는 外聲 쪽으로 더 移動함에 따라서「아이→아ㅣ→애」또는「ㅇ→ㅸ, ㅇ→ㅎ, ㅇ→w」等으로 되며「싸이→싸히, 싸와→싸콰, 아이→아히」라 된다. 요컨대 CV+V(아ㅣ)→CV(애), CVCV(아이, 아히, 아기)가 된다. 이리하여「애—아이—아히—아기」는 어느 方向으로 든지 移動하는 하나의 活動이다. 日本語의 kawa(皮)—ka'a—kaa도 同一한 活動이다.

CVC+CV는 붙어서 CVCCV가 되거나, 붙지 않아서 CVC CV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에 관해서는 아래서 자세히 검토할 터이지만, 역시 CVCV의 연속을 이루는 生理的인 힘이 지배한다.

그러므로 소리 다음에 소리가 오는 네 경우에 모두 同一한 生理的 活動에 의한여 CVCV

의 연속을 이루는데, 그 中 하나는 liaison, 하나는 hiatus, 나머지 둘은 어떻다 式으로 다루는 것은 科學的이라기 보다 오히려 通俗的인 方法임을 알 수 있다.

終聲 다음에 中聲이 오는 경우 中, 終聲文字가 그의 本音대로 소리나며 CVCV를 이루지 않고, 다른 소리가 나는 이상스런 경우가 있다. 「옷안이→오단이」「옷옷이→우도시」따위다. 이것은, 옷 <옫[47] <옽<우티<(만) etuku(衣), 終聲 /ㅅ/=/t/=/ㅌ/라서, 語原의 「옫」을 「옷」이라 써도 무방하였으나, 다음에 中聲이 오자 「本音대로」 소리난 것이다. 이것은 말의 바른 소리가 「本音대로」 소리나기 위해 글씨의 잘못까지 고친 경우다.

ii. 終聲 다음에 休止가 오는 경우. 旣述한 대로 소리난다. 즉,

牙喉音	ㄱㅋㄲ, ㅎ	→ㅋ
齒舌音	ㄷㅌ, ㅈㅊㅅㅆ	→ㅌ
唇 音	ㅂㅍ	→ㅍ

iii. 終聲 다음에 初聲이 오는 경우. 힘을 經濟하려는 生理的 條件 때문에, 終聲과 初聲이 접촉된 CC는 可及的 C 또는 CVC가 된다. 대개 한국語는 CC→C 方法, 日本語는 CC→CVC 方法을 택한다. 「國語 •귁 :엉→국어→구거, 國語 コクゴ」.[48] 한국語의 CC→C 化는 소리에 따라 자연히 다르므로, 모든 外聲을 ㄹ, 通鼻音(ㅁㄴㅇ), 終聲으로 쓰이면 완전한 休止(stop)를 일으키는 其他音으로 三分하고, 以下 說明에서 通鼻音은 N, 其他音은 S라 略稱한다. 例컨대 SS는 CC의 둘이 다 上記 其他音임을 뜻하고, SN은 CC의 앞의 것은 其他音, 뒤의 것은 通鼻音임을 뜻한다. 이런 式으로 나누면, CC에는 SS, SN, Sㄹ; NS, NN, Nㄹ; ㄹS, ㄹN, ㄹㄹ; 아홉 종류의 경우가 있다.

[SS] 앞의 S는 다음에 休止가 올 때 처럼 口路가 막힌 위치에 따라 /ㅍ/ /ㅌ/ /ㅋ/로 소리나고, 뒤의 S은 아래와 같이 強化된다.

ㄱ→ㄲ, ㄷ→ㄸ, ㅂ→ㅃ, ㅅ→ㅆ, ㅈ→ㅉ,

(ㅋ—ㅋ, ㅌ→ㅌ, ㅍ→ㅍ, ㅊ→ㅊ), ㅎ→ㅋ

이렇게 強化되는 理由는:

싶지	ㅅㅣㅍ(休止)ㅈㅣ	ㅅㅣ/ㅍ/으ㅈㅣ	ㅅㅣ/ㅍ/ㅈㅈㅣ
싣다	ㅅㅣㄷ(休止)ㄷㅏ	ㅅㅣ/ㅌ/으ㄷㅏ	ㅅㅣ/ㅌ/ㄷㄷㅏ	ㅅㅣㄷㄷㅏ
삭고	ㅅㅏㄱ(休止)ㄱㅗ	ㅅㅏ/ㅋ/으ㄱㅗ	ㅅㅏ/ㅋ/ㄱㄱㅗ	ㅅㅏㄱㄱㅗ

[SN] S은 /ㅍ/ /ㅌ/ /ㅋ/로 소리날 것인데, 접속된 N에 同化(assimilate)되어 各各 ㅁㄴㅇ이 된다.

/ㅍ/→ㅁ	앞문→암문
/ㅌ/→ㄴ	뒷문→뒨문

[47] 「倭語類解」 45 b. 「裘 갇옫구」.
[48] 朴時仁, 『알타이系語 硏究方法攷』 p. 47.

/ㅋ/→ㅇ 섞는다→성는다

[S ㄹ] S은 /ㅍ/ /ㅌ/ /ㅋ/로 소리날 것인데, ㄹ에 同化되어 各各 ㅁㄱㅇ이 되고, ㄹ은 ㄴ 또는 ㅇ이 된다.

/ㅍ/→ㅁ ㄹ→ㄴ 압록강→암녹강

/ㅌ/→ㄴ ㄹ→ㄴ 첫로선→천노선

/ㅋ/→ㅇ ㄹ→ㄴ, ㅇ 석류→석뉴, 성뉴, 성유

SN와 Sㄹ의 두 경우에 이렇게 同化가 되는 것은 완전히 막힌 소리(stop)가 아니고, 呼氣의 一部가 새어 나오는 소리인 ㅁㄴㅇㄹ이 S이 완전한 休止를 가져오기 전에 소리나기 때문이다. S ㄹ의 ㄹ이 ㄴ 또는 ㅇ이 되는 것은 S로서 막힌(stop) 呼氣가 코로 나오면서, 半徵半宮인 ㄹ이 콧소리 면서도 徵音인 ㄴ 또는 宮音인 ㅇ로 移動함으로써 S ㄹ의 차가 가장 적게 된 것이다.

[NS] N이 불완전하게 소리의 出路를 막았기 때무에, S이 불완전하게 強化된다.

안고→안고, 안꼬…→앙꼬

안감→ 안깜…→앙깜

암개→ 암캐…→앙캐

…→移動은 N가 뒤에 접촉된 소리에 同化된 것이다.

[NN] 두 N가 各各 本音대로 소리난다.

암만→암만, 단맛→단맛, 상놈→상놈.

단, NN가 ㄴㅁ인 경우는 ㄴㅁ→ㅁㅁ로 同化되는 경향이 있다.

단맛→단맛, 담맛; 산모→산모, 삼모.

Dental (ㄴ)와 labial (ㅁ) 區域 사이가 멀어서 연발하기에는 同化가 필요한 것이다.

[N ㄹ] N은 本音대로 소리나고, ㄹ은 同化되어 ㄴ 또는 ㅇ가 된다.

삼리→삼니, 삼 에; 천리→천리, 천에; 상류→상유.

콧소리(ㅁㄴㅇ)와 ㄹ(半徵半宮)의 距離가 멀기 때문에, ㄹ이 ㄴ 또는 ㅇ이 된 것이다. 이 때의 ㅇ소리는 ㅇ에 가장 가까운 中聲 y가 된다. 그림 7 아래 表와 그림 9 참조.

그러나 「천리」는 「철리」 라고도 된다. CC의 차를 可及的 가까이 하여 하나의 C로 접근 시키려는 것인 점 마찬가지다.

[ㄹ S] ㄹ은 本音대로고, S은 強化되는 경향이 있다. 理由는 NS의 경우와 같다.

알지만→알지만, 알지 모를지→알찌 모를찌.

알기→알기, 알가 모를가→알까 모를까.

[ㄹ N] 둘 다 本音대로 소리난다.

살맛→살맛 설날→설날, 신날

[ㄹㄹ] 앞의 ㄹ은 本音대로 소리나고, 뒤의 ㄹ은 同化되어 ㄴ 또는 ㅇ가 된다. 理由는

N ㄹ의 경우와 같다.

살리다→살니다, 살에다; 설래다→설내다, 설얘다, 설개다.

上述한 것을 간단히 表로 그려 보이면 아래와 같다.

	SS	SN	Sㄹ	NS	NN	Nㄹ	ㄹS	ㄹN	ㄹㄹ
앞	/ㅍ//ㅌ//ㅋ/	ㅁㄴㅇ	ㅁㄴㅇ	本音	本音	本音	本音	本音	本音
뒤	强 化	本音	ㄴ, ㅇ	稍强化	本音	ㄴ, ㅇ	稍强化	本音	ㄴ, ㅇ

CC의 距離가 먼 경우는 항상 同化活動이 있어 그 距離를 단축 시켜 單音的으로 만드는 사실이 잘 보인다. 한국語의 終聲이 글자로서는 여러 종류지만, /ㅍ/ /ㅌ/ /ㅋ/ 세개의 stops와 ㅁㄴㅇㄹ 네개의 不完全한 stops 뿐이고, 後者가 絶對多數인 사실을 아울러 생각하면, 한국語는 거의 완전히 CVCVCV의 연속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混書된 終聲. 終聲이 休止 ㅇ를 가져온데 유래하는 形式이다.

바ㄹ(休止) →바ㄹ(ㅇ)ㅏ→바ㄹ가—밝아(晴)ハレ

바ㄹ(ㅇ)다→바ㄹㄱ다—밝다(明)アカ

버ㄹ(休止) →버ㄹ(ㅇ)ㅓ→버ㄹ거—벍어(裸)ハク

→버ㄹ(ㅇ)다→버ㅅ다—벗다(裸) ㄹ→ツ移動 참조.

하ㄹ(休止) →하ㄹ(ㅇ)ㅏ→하ㄹㅋㅏ—핳아(搔)カク

→하ㄹ(ㅇ)다→하ㄹ타—핳다(舐)

ㅎㅜㄹ(休止)→ㅎㅜㄹ(ㅇ)ㅣ→ㅎㅜㄹㅌㅣ—훑이(秡)ハラ

→ㅎㅜㄹ(ㅇ)다→ㅎㅜㄹ타—훑다(拂)ハラ

終聲이 休止(ㅇ)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바ㄹㅏ→바라(開)

버ㄹㅓ→버러(裂)

하ㄹㅏ→하라(舐)

ㅎㅜㄹㅓ→후러(振)フル

同一語의 終聲이 休止를 가져오느냐 않느냐라는 偶然에 따라서, 그것이 混書되느냐 않느냐가 갈라지고, 또 따라서 語가 分派하였음을 본다.

(한)닭이 (일)トリ는 「돌」의 終聲에서 완전한 休止가 있고 없고의 差다.

(2) 몽고語 만주語

이 두 地方語의 終聲은 /ㅍ/ /ㅌ/ /ㅋ/ ㅁㄴㅇㄹ, 種類와 數에 있어서 한국語에서와 같다. 二地方에서 r, l이 分化되었고, 몽고語에서는 /ㅌ/와 /ㅅ/이 또 分化되었으나, 分化되어도 同一 phoneme에 속하니 대차 없는 일이라 하겠다.

(3) 日本語

日本語의 경우, 「モーラ音聲(mora phonemes) /N/(はねる音), /Q/(つまる音)」[49] 라고 말한 服部四郎씨에 의하면, 終聲은 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倭語類解에서 移記하여 아래싣는 바와 같이 日本語의 /Q/는 /ㅍ/ /ㅌ/ /ㅋ/를 포함하고, /N/은 ㅁㄴㆁ을 포함하니, 사실은 여섯이 있다.

/ㅍ/十$^{십}_{시우}$ 月$^{월}_{계쯔}$ ○ㅅ우빠쯔, 十羽○십바	ㅁ 三$^{삼}_{산}$ 伏$^{복}_{후구}$ ○ 산 부 구
/ㅌ/一$^{일}_{이지}$ 月$^{월}_{계쯔}$ ○ 이지빠쯔, 烈$^{렬}_{레쯔}$ 士$^{사}_{시}$ ○렬시	ㄴ 三$^{삼}_{삼}$ 蕉$^{초}_{쇼}$ ○ 산 쇼 우
/ㅋ/六$^{륙}_{로구}$ 月$^{월}_{계쯔}$ ○ 로구빠쯔, 北^{북} 狄^{적} ○ 호구데기	ㆁ 三$^{삼}_{산}$ 月$^{월}_{계쯔}$ ○ 산빠쯔
	正$^{정}_{쇼우}$ 月$^{월}_{계쯔}$ ○ 쇼우빠쯔

日本語로 건너가서는 /ㅍ/ /ㅌ/ /ㅋ/는 모두 ツ로 表記되지만, 소리는 아직도 /ㅍ/ /ㅌ/ /ㅋ/로 나고, ㅁㄴㆁ은 모두 ン으로 表記되지만, 소리는 ㅁㄴㆁ의 어느 것으로 난다. 단, 終聲ㄹ은 ツ로 移行하고 또는 中聲을 取하고 音節化되고 없어졌다. 그러므로 日本語의 終聲도 根本的으로 本土의 그것과 완전히 같았다.

日本語 /Q/群의 소리 셋 中, /ㅍ/와 /ㅌ/의 거리는 /ㅌ/ /ㅋ/의 거리 보다 멀다. 그 理由는 唇音(labial)區와 舌音(dental)區 사이는 떨어지고, 舌音(dental)區와 牙音(palatal)區는 보다 인접하기 때문이다. /ㅌ/ /ㅋ/는 서로 잘 相通한다. 日本語式으로 나누면 알타이系 四地方語 終聲은 /Q/ /N/의 둘이다.

3. 終聲의 記法

위에서 訓民正音의 終聲 記法을 오늘의 終聲記法과 비교하고, 그때에 初聲으로 쓴 것을 오늘은 앞의 음절의 終聲으로 쓰는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 보다 여러 갑절 더 많았음을 보고, 그 때의 記法은 CV CV CV의 연속을 이루는 말소리의 自然的 흐름에 더 잘 順從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즉 한국語 記法의 本式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 原則이었고, 今式은 그 原則을 버린 것은 아니되, 語幹을 밝히기 위해 보다 자주 실제 소리에서 떠났다. 本式은 「便於日用」 하였고, 今式은 더 科學的 이라고 말함이 可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二式을 비교하면:

本式	今式
여름(果, 夏)	여름(夏), 열매(果)
어름(氷, 結氷)	어름(氷) 얼음(結氷, 氷)

語幹을 충분히 나타 내려면 열매=열음 (果)의 계절인 여름(夏)도 열음 (夏)이라고 써야 마땅할 것이다. 今式이 의도한 語幹은 나타내지도 못 할 뿐 아니라, 語를 語原에서 분리하야 혼란을 초래한 이런 例가 많다. 그 反面에 龍飛御天歌에 보면:

[49] 服部四郎, 上引書 p. 366.

本式	今式
하늘ㅍ디시니(stanza 4)	하늘의 뜻이 시니
길ㅈ새軍馬(stanza 58)	길의 가의 軍馬
바ㄹ우희(stanza 83)	바다의 위

本式도 語幹에 決코 무관심하지 않았다. 「하늘」의 「ㅎ」, 「길ㅈ」의 「ㅅ」은 이경우에 소리는 안 나도 所有格을 明示하기 위해 써있다. 語幹뿐만 아니라 文脈까지도 주의하며 記한 것임을 본다.

本式은 「소리나는 대로」 今式은 「語幹을 밝히」고 라는 原則이있었던들, 그것은 共히 아주 相對的인 原則에 지나지 않았다.

소리나는 대로 적자하니, 앞뒤소리의 狀況에 따라서 「사람과, 사라미」 「하야케, 하야치」처럼 記하여 單語의 定形이 소리의 흐름 속에 들어간다. 單語에 定形을 주자하니, 「여듧살」 「맑고 맑은 물」 처럼 소리가 나지 않을 때에도 글씨를 써넣게 되어, 一字一音의 原則으로 소리를 記하려는 글씨의 根本目的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反目的인 경우가 어찌하여 생겼는가? 어떤 單語의 形이란 것은 소리의 흐름 속에 그 單語가 쓰인 온갖 경우를 검토하여, 모든 경우를 망라한 종합적인 形이니, 그 形을 어떤 하나의 경우에 다시 쓸 때에는, 이 경우에는 필요치 않지만 다른 경우를 위해 있는 부분이있게 된다. 例컨대 「막고 말근 물」 이라고 소리 나지만, 「맑」을 形이라 하였으니, 「맑고 맑은 물」이라 쓰게 되어, 「맑고」의 경우 「ㄹ」은 필요치 않지만, 「맑은」의 경우를 위해 준비해 가지고 있는 점심이다

글씨는 말소리를 적기 위한 것이라는 존재이유에 때로는 어긋 나지만, 語에 定形을 주는 利點으로 이 記法을 採用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重大한 疑問이 있다. 그것은:

「單語는 다른 많은 單語들과 연속되어 이루는 흐름의 變易하는 狀況 속에서 끄집어 낼 수 있는 것인가?」

言語가 보여주는 대답은 「없다」는 것이다. 語形이 「CV—CVC—CVCV」式으로 移動하는 사실, 「사람과, 사라미」의 경우 記法上 語形이 語가 처해 있는 狀況 속에서 出沒浮沈하는 사실, 「맑고, 맑은」의 「맑」을 語形으로 인정하였을 경우 「ㄹ」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사실, 이런 모든 사실은 單語란 狀況 속에서 끄집어 낼 수 없음을 일러준다. 單語의 用途 즉 品詞가 文脈이라는 의미의 흐름 속에서만 있듯이, 單語의 소리와 그것의 바른 記法은 소리의 흐름 속에서만 있다. 한국語의 記法原則이 本式도 今式도 相對性을 띠지 아니치 못한 原因은 程度의 差는 있을지언정, 共히 「狀況 속에서 單語를 끄집어 내는 일이」 어려운데 있었다. 狀況 속에다 單語를 다시 돌려 보내지 않는 限, 語形의 모든 人工的 部分은 침식될 것이다. 그런데 單語는 그의 狀況 속에 돌려 보내기 위해 있는 것이니, 돌려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言語에 科學을 적용함으로써 얻은 利權視되어 있는 單語의 形式을

다시 그의 狀況 속에 돌려주느냐 않느냐 라는 政策問題는 本攷의 分野가 아닌 줄로 안다.

이미 世宗大王께서 單語를 狀況 속에서 뽑아내기로 政策을 決定하신 것은, 한국文字 創製의 기본자료가 된 몽고 만주의 글씨가 單語別로 成字한데 있었다. 그러나 大王께서는 單語別로 成字하시지 아니하고 單語를 다시 쪼개어 音節別로 成字하시었다. 그러나 생명이 가진 自由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言語는 그것도 너무 큰拘束이어서 파괴하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一字一音의 原則으로된 單音을 代表하는 글자를 지어낸 것이며, 그것을 그저 연속해서 쓰는 언어도 많다. 알타이系와 밀접한 土耳其語도 그렇다. 그러나 sister의 두 s가 그것이 쓰인 狀況이 다르므로 실제 소리가 다른 따위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非常に嚴密にいうと, 音素とは無關係に "單音" を客觀的に定義しようとすることが誤りである, とさえ言い得るであろう. 音節の場合には, この矛盾が一そう大きくなる. 音節の音韻學的定義において, 諸學者の意見が非常にまちまちであつたのは, そのためであると思う. 音節は, 各言語において一定の音韻的構造を有するもので, それとは無關係に客觀的に定義しようとすると色々の困難に出くわすのであると思う.」[50]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單音을 代表하는 日用의 文字가 話中에 쓰일 때 실제 狀況에 따라서 조금씩 移動하며 가지는 모든 差도 나타내도록 文字에 어떤 記號(diacritical marks)를 加하거나, 文字를 더 新作하는 것은 「便於日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쓰이는 各種 言語의 一字一音 原則의 二十餘 또는 그 以上의 數의 單音字 마저도 사실은 喉 牙 舌 齒 脣 등 各部에서 나는 소리를 쪼갠 것인데, 話中에 쓰일 때는 실제 狀況에 따라서 同一部內의 他音으로 移動하는 큰 自由가 있어서 쪼갠 것을 무의미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더 쪼갤 필요가 없다는 예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語音의 記法에 관한 문제는 單語, 音節, 單音 어느 것을 單位로 하느냐에 다시 돌아온다. 이리하여 中國語 몽고만주語, 日本語 한국語, 土耳其語 印歐語 등의 各種 原則의 記法이 있게된 것이다. 그러나 어느 記法을 따르든지 산 사람의 話中에 쓰인 言語가 가진 活動의 自由는 拘束되지 아니 한다.

三. 語 調

말이란 산 사람이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청취하는 手段이니, 「말하는 사람의 심장의 고동, 혼흡의 주기 등 생명의 運動方式을 따라 강약 고저 장단의 차가 있는 소리와 작은 침묵들의 시간적 선적(linear) 운동을 한다. 또 듣는 사람의 주의력의 移動의 作用을 따른 차도 있다. 그러므로 소리의 발성 청취에는 반드시 일종의 律動이 있다.」[51]

---

[50] 同 p. 243.

[51] 朴時仁, 『日輪民族詩歌小論』「음대학보 제二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64). p. 16.

길고 짧은 침묵이 話中의 文, 句, 語 또는 音節 사이에 있고, 강약 고저 장단의 차가 話中의 소리나는 部分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소리나는 部分을 구성하는 音節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세게, 길게 또는 높게 소리나서 相對的 特出性을 반드시 가지게 된다. 이런 相對的 特出性 가운데는 생명의 자연적 律動(élan vital)에 의한 것, 감정의 긴장 이완(strain-lax)의 차에 의한 것, 의미의 차에 의한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악센트란 相對的 特出性 中에도 特히 의미를 구별하는(distinctive) 종류의 特出性을 가리킨다.

아시아에 있어서는 말소리의 相對的 特出性이 일찍부터 주의를 끌었다. 訓民正音에서는 그것을 아래의 四種으로 나누었다.

「左:장加강一·ᄚ點:뎜ᄒᆞ·면則·즉去·컹聲 셩·이·오(左:장·ᄂᆞᆫ:왼녀·기·라 加강·ᄂᆞᆫ더을·씨·라 一·ᄚ·온ᄒᆞ나·히·라 去·컹聲셩·은·ᄆᆞᆺ노·푼소·리·라)二·싱則·즉上:썅聲셩·이·오(二·싱·ᄂᆞᆫ:둘히·라 上:썅·은·처ᅀᅥ·미 ᄂᆞ:갑·고 乃:냉終중·이노·푼소·리·라) 無뭉則·즉平뼝聲셩·이·오 (無뭉·ᄂᆞᆫ:업슬·씨·라 平뼝聲셩·은·ᄆᆞᆺᄂᆞ가·ᄇᆞᆯ소·리·라)

入·십聲 셩·은加강點:뎜·이同똥而싱促·촉急·급ᄒᆞ·니·라 (入·십聲셩·은ᄲᆞᆯ·리긋ᄃᆞᆫᄂᆞᆫ소·리·라 促·촉急·급·은ᄲᆞᆯ·리ᄀᆞᆯ·씨·라)」[52]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 보면,

:장·ᄂᆞᆫ왼녀·기·라

·강·ᄂᆞᆫ·더을·씨·라

··ᄚ·온ᄒᆞ나·히라

·싱·ᄂᆞᆫ:둘·히·라

·컹셩·은·ᄆᆞᆺ노·푼소·리·라

·컹셩·이·오

ᄂᆞ:갑·고

·처ᅀᅥ·미

강·뎜이

따위의 (1)「·ᄂᆞᆫ—·온—·은」, (2)「·미—·이」, (3)「·기·라—·씨·라—·히·라—·리·라」, (4)「·오—·고」에 左加一點하여 있다. 처음 (1)(2)는 主格토, (3)은 述語終止格토, (4)는 述語 中止格토다. 토는 自主性을 가지느니 보다는 文脈(context) 즉 狀況을 따르는 것으로 미루어, 이들 토의 加點은 文脈에 흐르는 힘을 표시한 것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토에게 본질적인 힘이 아니라, 다만 狀況的인 힘이다. 사실,

「ㄱ·ᄂᆞᆫ:엄ᄊᆞ·리·니 君군ㄷ字·쫑·처ᅀᅥᆷ·펴·아·나 ᄂᆞᆫ소·리·가ᄃᆞᆫ·니 ᄀᆞᆯ·바·ᄊᆞ·면蚪뀽뷩字·쫑·처ᅀᅥᆷ·펴·아·나ᄂᆞᆫ소·리·ㅁ·ᄃᆞᆫ니·라」[53]

---

52 「訓훈民민正졍音흠」 pp. 13 b.—14 a.

53 同 4 a.

에 보면, 「·ᄂᆞᆫ—ᄂᆞᆫ」, 「·니—니」, 「·ᄀᆞᄅᆞ—·ᄀᆞ·ᄅᆞ」의 경우 左加一點이 있었다 없었다 하며, 文脈을 좇아 다르다. 그러므로 意味辨別的도 아니고, 固定的도 아닌 한국語의 이런 加點은 엄밀한 의미의 accent가 아니다. 去聲 上聲 平聲 入聲이란 말이 그것은 中國의 四聲을 본따서 加한 點이라고 明示한다.

日本語의 경우 服部四郎씨가 東京方言의 「アタラシイ」에 관한 宮田씨의 말을 引用하여,

「臨時的인 [アタラシ イ] [アタラシイ] [アタラシイ]の始く, 問題の箇所の上昇を避けて發音しても, 根本的にちかつた型としては意識さぬ」 として居られる點に關しては, ここに述べたと同じことがいえる.」[54]

라 말한 것을 따르면, 「日本語のアクセント」라는 것도 固着的 意味辨明的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의 accent가 아니다. 「音韻論から見た國語のアクセント」라는 論文中에서 服部씨의 말을 아래에 移記한다.

「或言語(方言)の音素を音韻論的に記述するには辨明的特徵だけを擧げればよい. (中略)或言語(方言)のアクセント型を音韻論的に記述するのにも辨明的特徵たけを擧げればよい.」[55]

한국어 日本語의 소위 accent는 固定的 意味辨明的 特徵이 아니므로 accent가 아님을 다시 강조해 둔다.

한국어의 경우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例컨대 「'잇다—있'다」의 「'」가 의미를 변별하는 accent라고 흔히 말한다. 그러나 「'잇다」「있'다」의 「'다」「다」는 單語의 本質的 不可分的 部分이 아니라, 一時的 狀況的으로 加用된 述語終止格토다.

加之에 「없다—있다」의 대조에서는 「있'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소리난다. 그러므로 accent가 아님이 分明하다. 또는 「잇다—있다」라고 보고, stress accent(強弱)가 아니라 agogic accent(長短)이라고 설명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 「있다」는 얼마 전 까지도 「잇다」라고 썼다. 「잇다」(繼)— 잇다(有)」의 長短의 차를 科學的 統計的으로 측정하면, 어떤 사실이 밝혀 질지 疑問이지만, 그 長短의 차로서 의미를 변별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모로 보아도 accent가 아니다. 그러므로 李崇寧 博士는 accent라 지칭하지 않고 聲調라 名之하시고,

「本是 活用에서의 聲調는 規則的인 것이었더니, 漸次 phonetic condition에 따라 이것이 이즈러지어 相當한 部分에 rhythmical shift가 進行된」[56]

사실을 지적하시었다. 이는 從來 accent라고 안것이 사실은 話中의 狀況이 다르며 달라지는 rhythmic beat를 지칭한 것이며, 本是 어떤 單語나 토에 固定的이 아닌 것을 中國語式으로 固定하려다가 산 사람의 산 言語가 가진 活動의 自由에 의하여 그 시도가 水泡로 돌아간 것을 밝히신 것이다.

---

[54] 服部四郎, 上引書 p. 225.

[55] 同, pp. 249—351.

[56] 李崇寧, 「國語學論叢」 p. 54.

從來 accent 라고 부른 것이 rhythmic beat 일진대는 그것을 지배하는 原因은 언어의 레벨에서 완전히 알아 낼 수는 없다. 그 原動力은 더 深底로 파고 들어가, 감정(emotion) 맥박 呼吸 등 心理的 生理的 分野에서 찾아야 한다. 즉 그것은 다만 언어학적인 分野를 넘은 더 광범한 의미의 生命의 律動의 accent 다.

CVCVCVCV 型의 연속을 이루는 알타이系語의 맥박(beat)은 발성 또는 청취된 소리의 연속이 사람의 생리적 조건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metrical accent 여서,[57] 일반적으로 '''CV 'CV ''CV 'CV 型이며, 알타이系 上記 어느 地方語에 있어서나 앞의 音節이 더 特出的이다.

그러나 日本語의 「ウマ」「ウシ」의 경우 뒤에 音節이 더 센 따위 特殊的인 경우가 있다. 「ウマ」「ウシ」의 「ウ」는 mori—ᄆᆞᆯ—ᄋᆞᄆᆞᆯ→ᄋᆞ마(ウマ)

ᄉᆞ—ᄋᆞᄉᆞ→ᄋᆞ시(ウシ)

의 科程을 거치며, 「ᄆᆞᆯ」「ᄉᆞ」의 初聲을 세게 낼 때에 자연 先行된 가벼운 「ᄋᆞ」가 보다 分明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語根인 「マ」「シ」보다 여린 것이다.

이와 같아서 한국어에서 잇다(繼)보다 있다(有)의 語根이 여린 것은 「잇」은 본시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진 語根인데 反하여 「있다」의 「있」은 「이다」의 「이」와 같이, 또는 日本語「ウマ」「ウシ」의 「ウ」와 같이, 語幹에 「다, 라」等 토가 붙을 때 CVCV 의 연속을 이루려고 쓰인 「ᄋᆞ」가 자라난 것이기 때문이다. 決코 잇다(繼)와 구별하기 위해 세거나 여린 것이 아니다.[58]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文法部에서 述語 中止格토 「이고, 이니」, 述語終止格토 「이다, 이라」等을 다룰 때에 자세히 논하였다.

---

[57] 朴時仁, 詩歌小論 p. 16.

[58] 李崇寧, 「國語造語論攷」 p. 210; 梁柱東, 「古歌硏究」 서울, (1960) pp. 192—3 참조. 金芳漢, 『國語主格語尾이考册論』, 「學術院論文集 人文社會科學 第五輯」 서울, (1965) p. 56에서 지적된 알타이語의 bi, 한국語「있」, 日本語 wi 가 移動形이라는 것을 否定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移動形들의 原因을 말한 것이다.

〔Abstract〕

A STUDY OF THE ALTAIC TONGUES: PHONOLOGY

In an article of mine appeared in this journal (Vol. 1, No. 2) stress was laid upon the fact that Mongolian, Manchurian, Korean and Japanese are four main branches of the Altaic tongu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peech sounds of these dialects in order to throw some light upon the forces that lie deep down and cause those sounds to move and change without cease.

1. Vowels

(a) Simple Vowels. All the four dialects share a set of six simple vowels (a, e, o, u, i, ʉ) with slight local differences in value. A glance at the letters (except the Japanese syllabic alphabet which uses simplified forms of Chinese characters) representing the six vowels reveals that they form three pairs: a-e(陽 light, male), o-u (陰 dark, female) and i-ʉ (中和, central). In each pair, the one that stands before is light, and the one that stands behind is dark.

The ideas of these terms are found incorporated in the making of the letters.For instance, in Mongolian the letters for the three light vowels (a, o, i) have a stick, and the letters for the three dark vowels (e, u, ʉ) have a hole to show their respective gender. In fact, light, central and dark were the basic elements of the Altaic cosmology Yi (易), and represented the heaven, man, and the earth. And as each pair was regarded as a union of a male and a female, there were six in all. Thus, the linguistic science of the Altaic peoples, like all their o ther sciences, was done in accordance with their ancient cosmology which says,

"The Book of Yi is vast and comprises all. It comprises the ways of the heaven, man and the earth. It comprises the three ways and combines both the sexes, so there are six."

In the fifteenth century Korean there were another vowel (·) which quickly fell into disuse. This vowel was regarded as the one that gave birth to the two central vowels(i, ʉ) which, in turn, gave birth to the other four vowels (a-e, o-u).

The Book of Yi says, "Yi began with the infinite one(·). This gave birth to the two sexes (i, ʉ). These gave birth to the four features (a-e, o-u)."

It was quite recently known that all other vowels branched from one indistinct nondescrpt vowel (A). In making use of this vowel the linguists of the fifteenth century Korea obeyed

the dictates of their age-old cosmology and entered the secret realm which was to remain closed to others for half a millennium longer.

The gender of the vowel of the initial syllable of a word determined the gender of all other vowels in the word and also the gender of the word. As a vowel that received the heaviest stress it was either light or dark and gave its own gender to all other vowels in the word. This was a very strong rule called the vowel attraction or harmony. This rule has been greatly weakened in the course of time.

(b) Gliding Vowels. A gliding vowel is a vowel which begins with one simple vowel and glides on without stopping until it ends with another vowel of the same gender. A gliding vowel cannot glide across the central vowel area where the voice fades out. The gliding vowels of each of the four Altaic dialects are different in value and number in the written language, but there are clues enough to suspect that in the actual spoken language they are actually same in all the dialects.

2. Consonants

(a) Kinds of Consonants. In all the Altaic dialects (except Japanese whose letters are borrowed ones) consonantal letters are so formed that they can show the areas in which they are produced. This was achieved by using the basic letter of the area for the representative consonant, and adding strokes, diacritical marks or letters which may or may not be same to denote other consonants that are produced at different points within that area. It is to be assumed from this that the phonetic science which gave birth to these letters can be unearthed by a careful comparative study of the forms of the letters.

A Korean linguist of the eighteenth century classified the Korean consonants as below:

			not dark not light	quite light	dark light	quite dark
glottal	(宮)	earth	ʔ	ħ	h	hh
palatal	(角)	tree	ŋ	g	k	kk
lingual	(徵)	fire	n	d	t	tt
dental	(商)	gold	s	z	c	ss, zz
labial	(羽)	water	m	b	p	bb
lingual-glottal(半徵半宮)			r-l			
dental-glottal (半商半宮)			ž			

The vertical arrangement shows the areas of production, while the horizontal order indicates the degrees of darkness or ligtness, in other words, the intensity of aspiration. This table shows that in the Altaic linguistic science they regarded the consonants in the first two columns as voiced, and those in the next two columns as breathed.

The terms dark (f.) and light (m.) as well as the five elements, earth, tree, fire, gold, and water allocated to the five areas of consonantal production show that the classification was done according to the Altaic cosmology. The Book of Music (樂書) says,

"All things have emotion ever since their birth; emotion is uttered and becomes voice. Heaven 5 and Earth 10 are united and give birth to earth in the center; its voice is kung (宮). Earth 4 and Heaven 9 are united and give birth to gold in the west; its voice is sang (商). Heaven 3 and Earth 8 are united and give birth to tree in the east; its voice is kak (角). Earth 2 and Heaven 7 are united and give birth to fire in the south; its voice is ci (徵). Heaven 1 and Earth 6 are united and give birth to water in the north; its voice is wu(羽)." In the science of the Altaic peoples the order of the five voices or sounds has always been kung, sang, kak, ci, wu. This is neither the order of the birth of the five elements nor the order of their death, but the order of the relative difficulty of producing the five voices. That this order is right linguistically has been reaffirmed by the latest development of the linguistic science of the West. It is amazing to notice how deeply true the age-old Altaic cosmology still is.

(b) Consonantal Shift. To examine the consonantal shift of the Altaic tongue a case study was made by means of comparing some passages in the Korean dialect of the fifteenth century and today. This little study has revealed these:

i. Consonantal shifts are easy between velars and glottals, less easy between nasals and light labials, and least easy and seldom occur between labials and dental-alveolars. The directions of the shifts are k→h→drop out, g→d→z→š→drop out, b→f→drop out. In other words, consonants shift either backward to the glottis or forward to the lips and drop off.

ii. A consonanant that begins a syllable shifts more easily to another consonant within its own area than to one in another area. The sentences examined show frequent instances of palatal-dental shifts but no instances of dental-labial shifts.

iii. A consonant that ends a syllable has the same value as any other final consonant within its own area.

There are enough clues to leave little doubt that the actual sounds shifted very much the same way in other dialects of the Altaic tongue, although there are regional orthographic differences.

3. Final Consonants

Since language is a stream of breathed or voiced sounds and consists of continuation and cessation of sounds which require the course of breath to open and close as the sound begins

and ends, stricktly speaking, the utterance of even one simple vowel takes the form of CVC, for instance, ʔaʔ(앙), ʔeʔ(엉), etc. It is amazing to notice how accurate the linguistic science of Korea under the reign of King Sezong was.

If the stoppage caused by the last C in CVC is any stronger than the mere outflow of breath (ʔ), the stoppage is removed by an equal amount of reaction which makes CVC into CVCV. On the other hand, if the last C in CVC becomes weak and drops off, CVC becomes CV. Thus, the stream of speech sounds always tends to become a continuation of CVCV.

In the Altaic tongue which maintains the stoppage caused by final consonants and makes different consonants produced in the same area sound all alike, there are seven final consonants: /k/, /t/, /p/, m, n, ŋ and l. A close examination of the final consonants of the Korean dialect reveals these facts:

(a) Final consonant followed by silence: The sound is stopped where the consonant obstructs the outflow of breath, making all consonants of the same area alike.

(b) Final consonant followed by a vowel: CVC+V=CVCV. In this case the final consonant become the initial consonant of the next syllable.

(c) Final consonant followed by a consonant: CVC+CV=CVCCV. This CVCCV tends to becomes either CVCV by contracting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C's to the greatest possible degree (닫고→다꼬) or CVCVCV by inserting a weak vowel between the two C's (닫니→다드니).

The table in the below shows this in detail. In this table S represents stops (/k/, /t/, /p/), N represents nasals (m, n, ŋ), and L or R represents l or r.

	SS	SN	SR	NS	NN	NR	LS	LN	LR
syllable 1	[p][t][k]	[m][n] [ŋ]	[m] [n] [ŋ]	same	same	same	same	same	same
syllable 2	strongest aspiration	same	[n] or mere breath	stronger aspiration	same	[n] or mere breath	stronger aspiration	same	[n] or mere breath

This is true of the other Altaic dialects.

4. Notation of Final Consonants

Since the stream of sounds in the actual speech approaches the smooth flow of CVCVCV, there is little sense in recognizing final consonants and notating them down as such. This is where the clash between the physiological force which tends to make language as smooth a stream of sounds as possible and the linguistic science which attempts at cutting that stream into bits of semantic units comes. This living force in language may be likened to

the tides and waves of the ocean which seek to restore the disturbed stability and make a ceaseless attack at the fragile breakwater built by the art of man. Among the systems of notating the Altaic speech sounds the Korean system is most scientific in that syllabic units are built into words. As a result, the Korean system receives the fiercest attacks of the timeless tidal force latent in the language.

5. Accent or Beat Issue

Man is ceaselessly attacked by internal and external stimuli which give varying intensity and length to his speech sounds. Thus, there are always some syllables that are accentuated and others that are not. However, what is commonly meant by the term accent as used in the linguistic science is only that kind of accents which constitute the distinctive feature to differentiate the logical meaning. In the Altaic tongue there are no accents in this strict sense of the term, although there are always the inevitable metrical beats arising from emotion and other pulsating streams intrinsic to all animate beings.